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아는 크리스천들이 기도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 중에 행하는 영명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6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2월 15일 (토) 제 1766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언제나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 CT, A. 윌슨 목사의 코로나확산 위협에 대한 크리스천의 믿음 재점검 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교회도 경계에 들어갔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확진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교회 차원에서 예방 지침과 목회서신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 후 증상이 거의 없는 데다 잠복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큰 재앙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종 감염증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태는 보건의 위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 전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까지 고려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한

국 교회 내에서도 벌써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고, 예배마저 위협받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

크리스찬니티투데이(CT)는 앤드류 윌슨 목사(Andrew Wilson, King's Church, London, Teaching Pastor)의 글을 게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교회공동체라면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안을 잠재우며, 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성숙한 신앙과 기도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God Always Heals: Good news for our bodies-in this life and the next)고 보도했다.

이르든 늦든, 모든 크리스천은 인생에서 육체적 치유의 가능성에 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는 특히 나(앤드류 윌슨)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나는 제법 큰 카리스마적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육체적 치유를 받는 사람이 해마다 열댓 명은 된다.

나는 정기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사는 계속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또한 퇴행성 자폐증을 가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두 아이 모두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림 그리고, 손가락 쥐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두 아이는 치유되지 못했다. 나에게 치유 이야기는 그저 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매우 다양하다. 한쪽 끝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



람들에게 건강과 부를 약속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다른 쪽 끝에는 체험적인 육체적 치유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망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유를 하신다고 동의하는 크리스천 들조차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들로 혼란스러워한다: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까?'

우리는 질병을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 그리고 악을 다

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할까?

이런 유형의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치유를 그 자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그리고 나의 가족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나는 하나님의 치유에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형 하나: 바이러스가 내

몸을 공격한다. 그리고 나의 백혈구 세포들이 행동을 취해서 내 몸을 죽이려는 침입자를 내쫓는다.

매초 소량의 미네랄과 유기물이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내 몸의 각 부분들로 보내지고, 매시간, 매년, 지속적인 회복을 수행한다. 내 몸은 언제나 스스로를 치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인 것이다.

(3면으로 계속)



##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문화 만들라!

### 리더십개발, 월로우크릭빌 도나휴 목사의 '리더십 문화 창출 원리' 보도

모든 소그룹 사역은 리더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리더십 지향적이지 않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보다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당신이 선택한 전략은 리더십에 강력하게 집중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당신은 섬기는 리더십을 규정하고, 만인제사장장을 가르치며,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리더십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 영적 리더십

교회에서 사람들의 리더십에 대한 접근은 오직 하나, 즉 섬기는 리더십만이 허용된다. 리더십은 계급이나 중요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은사를 받은 리더가 없을 때에도,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섬기게 된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 리더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리

더십에 대한 이드로의 제안과 구제에서 제외된 과부들에 대해 대처한 초대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만일 잠재적인 리더 대기자들이 소그룹의 필요보다 많다면 당신은 영적 은사, 소명, 능력, 그리고 준비된 정도에 따라 심사해서 리더를 선발할 수 있다.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소그룹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8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 669-9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lchpress.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동성동역기, 생가독집 주문 제작, 타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8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제 5 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 The Missional Church Seminar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목회현장의 경험과 함께 듣고 나누는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March 16th-18th 2020.

장소 유니온 신학교

(Union Presbyterian Seminary, Richmond, VA)

일시 2020년 3월 16일(월) 오후 4시-18일(수) 오후 1시

등록비 | \$100(Pay to UPS)

우편 등록 | Dr. James Taneti (804-278-4350)

(Director, Global Mission Cente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3401 Brook Rd. Richmond, VA 23227)

문의 | 804-980-0645(배현찬)

903-743-8956(김동영)

이메일 등록 | James.taneti@upsem.edu

강사 배현찬 목사

〈선교적 교회 목회론〉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저자  
주예수교회 담임 목사

사례 발표 김동영 목사

한국 음식 문화 축제  
컬럼비아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

내용 | 강의, 나눔, 사례발표, 도서관 순례, 총장 초청 만찬

공동 주최  
(Co-sponsor)

국제 선교 센터 &  
(Global Mission Cente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사회 선교 연구원  
(Social Mission Center, Lord Jesus Korean Church)



발행인 칼럼

애매모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 상담이 있었던 것은 2018년 7월이었다고 한다. 멘로(Menlo)교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이 존 오트버그(John Ortberg)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다. 그가 어린아이들에 대해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존 오트버그 목사는 누구인가? 그는 한 때 윌로우크리교회에서 유명한 설교 목사로서 사역했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멘로교회 담임이기도 하다. 그는 상담을 하면서 그 자원봉사자를 매섭게 질책하는 대신 기도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에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자원봉사자가 교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게 하였고 이 상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오트버그 목사의 아들 다니엘 레이버리(Danile Lavery) 때문이었다. 성전환자(transgender)인 레이버리는 아버지의 상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버지에게 강하게 요구하였다. 오트버그 목사는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상담 내용과 그 후의 조치를 공개하였다. 멘로교회 당회는 이 일을 조사하면서 오트버그 목사를 최근까지 담임목사 사역에서 떠나 있도록 하였다. 애매모호한 상담과 그 후에 계속된 애매모호한 태도들이 일을 점점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매모호한 태도는 외부적 상황에서만 보이는 반응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애매모호함을 보이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개인은 누구나 독특하고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며 항상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애매모호하게 포장하려는 시도가 도처(到處)에 있다.

신학생 때에 부러운 분들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멋지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시다. 나도 장차 강단에서 그 목사님들처럼 목소리 톤을 내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동부이촌동의 목사님, 압구정동의 목사님, 여의도의 목사님 등등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닮으려 한 것이다. 나를 다시 찾기가 그렇게 오래 방황하지 않아 닮았는지 하마터면 나는 지금까지 세 분 목사님의 이름을 조합한 하선기(河善基) 목사로 애매모호하게 살 뻔했다.

애매모호는 아주 기막힌 가면(假面)을 하나 가지고 있다. '신중함'이란 가면이다. 애매모호와 신중함은 격(格)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 신중함은 그 자신을 품위 있게 만들고 주위를 평안하게 만든다. 애매모호는 자신을 그르치고 주위를 매우 난감하게 만든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콘서트가 있다. 예전에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애정남"이란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의 약자이다. 사람들이 애매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한 답을 유머러스하게 풀어갔던 인기 코너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의 애매모호함 태도를 누가 해결해 주겠는가.

나의 애매모호함은 내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바울은 애매모호함을 스스로 이렇게 거부했다. "예 예 하면서 아니오 아니오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한다. "No!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은 애매모호한 태도의 치유책을 스스로 갖는데 매우 도움을 준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각 영역에 바운더리(boundary)를 세워 그 경계선을 넘어 오는 것들을 향해 "NO!" 라고 외치라고 저자(著者)는 외친다. "맞는" 것을 분명히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을 단호히 "아니다"라고 할 때 애매모호는 사라진다.

내 삶에서 더 이상 늦지 않게 외칠 말이 있다. "애매모호여 안녕!"

전염병은 인간 미래의 일부...대비해야

BBC, "왜 동물로부터 더 많은 질병에 감염되고 있을까?" 보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영국을 포함한 16개국에 퍼지면서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전염병들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야생동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동물성 전염병에 따른 위험을 강조한다. 기후 변화와 세계화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킴에 따라 미래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Coronavirus: Why are we catching more diseases from animals?)

어떻게 동물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나?

과거 50년 동안 수많은 전염병들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며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198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HIV/AIDS) 위기는 고등 유인원에서 비롯됐으며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의 조류독감은 새에서 비롯됐다.

2009년 유행성 독감은 돼지에 의해 비롯됐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사향 고양이를 통해 박쥐로부터 왔으며, 에볼라 역시 박쥐에서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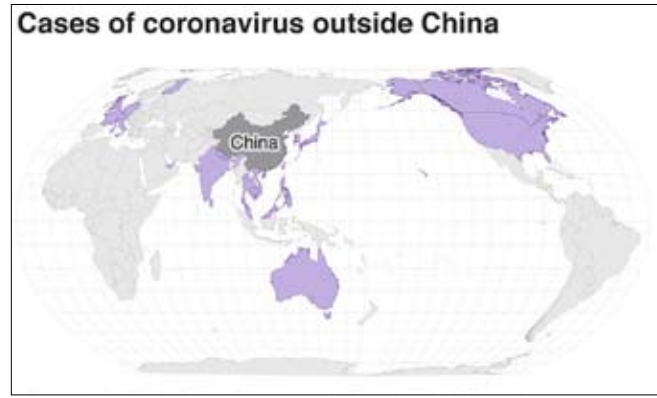
사스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중 약 10%가 사망했다. 반면 전형적인 독감의 경우에는 0.1%만이 사망했다.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동물의 생활방식과 거주장소, 생태계 먹이사슬을 변화시킴

가난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청소나 위생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들은 질병의 원천인 음식과 운반자인 동물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은 또한 불충분한 영양공급, 오염된

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61명이 사망했다. 각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분명하다. 여행 금지조치가 취해졌고,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이는 전염병 발병에 따른 전형적인 현상이다. 지난 2003년 사스로 인해 6개월 동안 세계 경제에 4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활동 움직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사회와 정부는 각각의 새로운 전염병들이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기도 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위기



도시화,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가 생태계 혼란케 새로운 질병을 '증가하는 위협' 으로 인식해야

인간은 항상 동물로부터 질병에 걸려왔다. 사실 대부분의 새로운 전염병들은 야생 동물로부터 왔다. 하지만 환경변화는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도시생활과 국제여행의 증가는 질병의 확산을 더 급속화 시킨다.

어떻게 질병은 종종 넘어 전염되나?

대부분의 동물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병원체를 갖고 있다. 병원체가 진화·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체를 감염시켜야 하는데, 다른 종에 감염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새로운 개체의 면역체계는 이 병원체를 죽이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두 종 사이에서 병원체 정복을 위한 영원한 진화게임에 감춰졌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

로써 그들의 서식지를 제거하거나 변화시켰다. 인간의 삶 역시 변화해왔다. 50년전 전 세계 35%의 인구가 도시에 살았지만 오늘날 그 비율이 55%에까지 이른다.

또한 이런 대도시는 야생동물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한다. 들쥐, 생쥐, 너구리, 다람쥐, 여주, 새, 자칼, 원숭이는 인간이 쓰레기를 버리는 공원 등의 녹지공간에서 살 수 있다. 종종 야생동물들은 야생보다 도시에 더 잘 서식한다. 도시에 질병을 진화시킬 수 있는 풍부한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장 위험할까?

새로운 종, 즉 사람에게 옮겨진 신종 질병들은 더 위험하기에 큰 우려를 낳는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질병 전염에 더 취약하다.

공기,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화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질병에 걸리면 의학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 역시 높다. 새로운 전염병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높은 인구 밀도의 대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몇몇 문화권에서는 도시에서 서식하거나 주변지역에서 키운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먹기도 한다.

질병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3월 현재까지 약 1만7000명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수록 질병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세계 병원체의 단 10%만이 식별됐고, 동물에 의해 전염되는 나머지 수많은 병원체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던전에는 얼마나 많은 쥐가 있으며 그들은 어떤 질병을 옮기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많은 도시 거주자들은 도시의 야생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몇몇 동물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언제나 고치는 하나님을...

(1면에서 계속)
유형 둘: 한 유대인 선지자가 그의 두 손을 앞을 못 보는 두 눈과 듣지 못하는 두 귀에 올려 놓으시자 즉시 보고 듣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한 청년이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 즉시 고침을 받는다. 그 청년은 즉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자신의 귀에 전화기를 대고 약혼녀에게 전화한다. 그 젊은 커플의 대화는 흥분 그 자체다.

사이에 끼어 부서진다. 그리고 자동차 앞 유리 와이퍼가 내 옆구리를 4인치 뚫고 간과 비장 사이에 박힌다. 몇 분 안에 앰블런스가 도착하고, 응급 구조원이 내 다리에 부목을 댄다. 외과의사

어진 상처를 꿰맨다. 16주 뒤에 나는 평소처럼 다시 사방 팔방 뛰어다닌다. 그 앰블런스, 그 응급 구조원, 그 외과의사의 기술, 수술실과 마취를 가능하게 한 기술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하

른 사람들은 그냥 기적적인 일이라고 불렀을 치유가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한다.

유형 넷: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죽지 않는다. 썩은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된다. 질병과 고통이 다시는 그들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수술실 복도의 살균약품 냄새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병원 대기실이 일상이 되어 버린 80대 어르신들이 새 생명과 새 청춘을 얻을 것이고, 흐르는 세월에 다시는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막혔던 귀가 열릴 것이며, 쓰지 못하던 팔다리가 고침 받을 것이고, 어두웠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자폐증, 다운증후군,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가 말끔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없애버려야 할 최후의 대적인 죽음도(고전15:26). 아무도 울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기쁨만이 있을 것이다!



가 자동차 앞 유리창 파편들이 내 몸통에서 제거하고 찢어 나뉘고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분의 자비가 다

오랜 세월 휠체어에 벗어나지 못했던 한 여생을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즉시 그녀는 치유 받고,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몇 달 뒤에, 그녀는 장애인권 지급증지를 청구한다. "데일리 메일"과 "BBC"가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룬다.

유형 셋: 11살인 나는 혼자 한 도로 한가운데로 자전거로 돌진한다. 내 경골과 종아리 뼈가 자전거와 폭스바겐 비틀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는...

(1면에서 계속)
이런 리더들은 자신의 은사를 주님의 몸에 유익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어떤 리더가 충분히 인정

재적인 리더로 보는 것이다. 만인제사장 교리를 실제로 마음 깊이 새기며 리더들에 대해, 또한 리더들과 함께 대화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은 제사장이나, 자질이 중요하다. 소그룹 사역에서 모순적인 말 가운데 하

있다. 탁월한 리더에 대한 기대감 표현

리더십 문화를 세울 때는 효과적인 리더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들의 은사, 능력

능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좋다. 은혜와 배움의 정신으로 리더십의 실패와 결함을 보완하게 해야 한다. 교회의 리더십을 존경받는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리더 중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1년'이 아니라 평생의 일로 전 교회가 인식하게 해야 할 것

영적은사, 소명, 능력, 준비된 정도 따라 리더 선발
은혜와 배움정신으로 리더십 실패와 결함 보완하게

받거나 칭찬받지 못해서 용기를 잃어버렸다면 그는 성품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혹은 은사를 사용하는 청지기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을 것이다.

나 '리더부재그룹'이다. 리더부재그룹은 사실상 아무나 리더라는 말만으로 결국 리더가 없는 것과 같거나, 혹은 리더가 없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도 역기능을 드러낼 것이다. 한 그룹의 질적인 면은 거의 대부분 리더에게 달려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리더십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범위,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 영적인 자질, 그리고 성품적인 특징을 규정해야 한다. 리더는 다음 성장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라는 점을 전 교회가 알게 해야 한다. 우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는 사역의 영향력과 기회를 확대시켜줌으로써 리더의

이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리더십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리더들이라면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움츠러들기보다는 당신이 마련한 기회에 마음이 갈 것이다. 그들이 이끄는 소그룹은 리더 자신이 성장하는 만큼, 그리고 당신이 투자하는 만큼 번성할 것이다.

만인제사장
한편으로 리더십 문화의 창출이란 모든 교인들을 잠

시론
미래시대 앞에 선 기독교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얼마전 수술을 했는데 내 몸을 직접 만지는 것은 의사의 손이 아니라 로봇이었다.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 수술부위를 파악하고,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의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끌고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로봇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수술할 것이지만 허준이나 그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 손이 아니라 기계가 일을 했다.

시대는 정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다양한 쇼들은 그 변화를 열심히 소개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쫓아가기에도 우리는 숨이 차다. 작년 7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쇼에서는 우븐시티(Woven City)라는 미래도시 설계 계획이 소개되었는데, 한마디로 전화기가 스마트폰 시대로 순식간에 변신하듯이 우븐시티는 미래의 도시인 '스마트시티(smart city)'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우븐시티라는 도시 이름은 격자 모양으로 직물을 엮는다는 뜻을 가진 'weave'에서 유래한 말로 그야말로 인공지능(AI)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가하면 밀레니얼세대가 이동 중에 짧고 간단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에 착안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콘텐츠 8,500개를 구성해 가로, 세로 맞춤형 영상이 끊임없이 플레이되는 '턴스타일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Z세대가 열광하는 짧은 콘텐츠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기술영상에 의한 플랫폼을 '퀴비(Quibi)'라고 한다. 엔터테인먼트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퀴비'는 한입거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Quick bite의 줄임말로 7-10분 길이의 영화부터 패션, 요리, 뷰티 등 뉴스, 스포츠,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주는 새로운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이렇게 모든 분야가 변화될 것이다. 올해 한국의 그들 총수들의 신년사를 분석했더니 '미래, 문화, 공진화, 디지털'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올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해보았더니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미래'라는 단어로 밝혀졌다.

미래, 그 시간은 과연 오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수학은 숫자를 계산하며 반드시 그 시간을 온다고 주장하고 과학이나 천문학은 우주의 변화를 제시하며 미래를 말하고, 시인은 감성과 감정의 흐름을 따라 낭만미래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은 안타깝게도 벌써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다.

동성에 문제도 그렇고, 낙태문제도 그렇고, 윤리 기준 문제도 모두 다 사실은 현재 닦친 문제이다. 그러나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 자리에서 바라보던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신앙도 사실,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변화를 바라보며 과학의 위대성과 인간의 연합함을 깨달음으로 갖게 된 두려움의 감정을 함께 갖고 있다. 몸 안으로 기계가 들어와 언젠가 입력해놓은 데이터에 따라 몸 구성구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라내기도 하는 로봇 수술경험은 또 새로운 것이었다.

(4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제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내, 치아미백(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히즈핑거 (His Finger)
책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시안내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재난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텅빈 유럽의 도시가 실제로 나타났다. 천만명 이상이 살아가는 중국의 7번째 도시인 우한이 유럽의 도시로 변해 버렸다. 치료약이 없다는 우한 폐렴이 발발했다. 현재 중국의 확진자는 3만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만 560여명에 달했다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은 중국의 통계를 믿지 않는다. 병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우한 시민들 50% 이상이 이웃 지방들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심한 마찰과 큰 갈등으로 전쟁을 방불할 만큼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상황은 23번째 확진

자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본에서는 크루즈 선상에서 감염자가 61명으로 늘어났고 본토의 감염자도 25명이 되어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보균자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가 1명이고, 뉴욕에서는 5명의 의심환자가 있지만 아직 확진자는 없다고 한다. 이 통계는 2월 6일 저녁시간 현재 상황인데 이 글이 독자들에게 읽혀질 때쯤은 또 얼마나 통계가 급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약성경에는 49번의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악질, 재앙, 온역, 염병 등으로 번순종과 우상숭배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들로 사용되었다. 다윗이 믿음이 흔들려 인구조사를 한 후에 혹독한 재앙으로 삼시간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간음함으로써 하루에 24,000 명이 떼죽음 당한 기록도 있

다. 또한 히스기아 왕정시대에 유다를 침공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던 앗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5천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출애굽 사건이 발발하는 과정에서 바로에게 내렸던 5, 6번째 재앙이 가축들의 급병과 사람들의 피부병을 일으켜서 바로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전염병은 전능자 여호와를 대적할 때 일어난 재앙들이었다.

최근에 중국정부가 선교사들을 전원 추방시켰다. 예배당을 강제 철거했다. 심자가를 파괴했다. 우한은 전국의 만기 독교 도시로 시범 선정된 도시였다고 한다. 48곳의 교회를 폐쇄시켰고, 예배당 건물들을 폭파 내지는 파괴시켰다. 성경책을 불태웠고 남겨놓은 교회당에는 시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했다. 예배시간에 정부선전 시간을 갖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교회지도자들을 체포했고, 집회를 봉쇄했다고 현지에서 추방당한 선교사가 밝혔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

렴 1호 사망자는 교회탄압의 최선봉에 섰던 담당 고위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우한의 바로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예수께서 말씀에 나타날 징조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잠오/눅21장). 근세기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에 없었던 급병들이 창궐했다. 18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를 필두로, 19세기의 1, 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의 독재와 소련과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류는 싹쓸이를 당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에이즈의 공포가 아프리카를 휩쓸었다. 이것뿐만 아니다. 현대의 사망률 1위인 암이라는 강자는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2003년에는 사스가, 2014년에는 에볼라가, 2015년에는 메르스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아시아 지역의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일이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다. 작년에 중국에서 살처분된

돼지만도 1억 마리가 넘었다고 했다. 매년 감기로 사망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매년 30만-50만 명에 달한다. 미국에 서만 매년 3-4만 명이, 한국에서도 4-5천 명이 감기로 생명을 잃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총기 사고로 100명씩 죽어가고 있다. 일년이면 3만6천명이 생명을 잃는다. 세상이 어떤 수퍼바이러스가 일어났든 이보다 강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전염병은 우한 폐렴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절대 절명의 질병은 '불신앙'이라는 질병이다. 이 불신앙의 치료제는 이미 확보해 놓았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강력한 영생의 치료제가 준비돼 있다. 지금 당장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의 질병으로부터 온 인류가 패우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는 인류를 치유시켜야 한다.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박상목 목사  
(가주 주님의교회)



하지 못한다”(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도록 새롭게 해주십니다. 영혼이 병들면 거짓 밖에 없고 죽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③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 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

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힘으로는 쉬 곤비해지고 피곤해서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야 달음박질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날수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모세의 고백을 빌리자면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남자는 '새 신랑' 여자는 '새 색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실상은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 나면 '새 신랑', '새 색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결혼함으로써 결혼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혼자 살듯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생활이란 내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의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영혼이 거듭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여러분, 2020년도인 올해는 쥐띠 해라서 쥐처럼 약삭빠르게 노력해서 '번영의 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 고린도후서 5장 17절

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입니다. 허무하게 날아가고 끝내야 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는 '새신랑' 여자는 '새 색시' 혹은 '새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했던, 나이가 들어서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입니다. 허무하게 날아가고 끝내야 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는 '새신랑' 여자는 '새 색시' 혹은 '새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했던, 나이가 들어서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 유명한 본문 17절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어둠 속에 거하던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기 전, 이전의 나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금년을 가리켜 경자년 쥐띠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년 쥐띠 생들의 운세를 가리켜 '번영의 해'라고 다소 흥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년이

되던 동양에서는 띠,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따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도 이런 말을 스스로없이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창세기 1장 27-28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던 동양에서는 띠,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따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도 이런 말을 스스로없이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창세기 1장 27-28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런데도 12마리의 동물에 사람을 견주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띠를 따져가며 쥐띠는 어떻고, 소띠 어떻고, 호랑이띠 어떻고, 말띠 어떻고, 닭띠 어떻고, 개띠 어떻고, 돼지띠 어떻고 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쥐띠, 소띠, 웅띠, 뱀띠, 말띠 하는 것은 다 이전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그러나 기독교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는 진단을 하게 된다.

병원에 누워 신기하고도 놀랄만한 의료기술과 장비를 경험하면서, 영적 발전이 없는 기독교 신앙, 소망의 기대를 주지 못하는 기독교신앙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하는가라는 걱정거리로 하나 더 안고 되원을 했다. 현실로 다가오는 기독교신앙의 위기를 여기서 찾아본다. 그토록 확실하게 보여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가 위기의 시작이었음을... 위기(危機), 위험과 기회 두 단

어의 조합 속에서 우리가 이제라도 불침을 단어는 기회(機會)임을 깨닫는다.

### 전염병은 인간 미래의 일부...

(2면에서 계속) 도시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야생동물은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거나 먹는지, 혹은 주변 지역시장에서 거래하는지 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위생개선을 위한 폐기물 처리와 해충방제는 이런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광범위하

게는 사람들이 환경을 대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전염병은 우리 미래의 일부다.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퍼지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0년전 발생한 스페인독감은 전세계적으로 50억명이 감염됐고 5백만-1억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과학적 진보와 건강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미래에

는 이런 질병이 보다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재앙으로 존재한다. 만약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지난 세기의 중반에 일부 서구사람들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시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런 새로운 질병을 '증가하고 있는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한폐렴 (2019-nCoV)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중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식습관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폐렴균을 가진 박쥐요리를 즐겨 먹는 중국인들의 식기호에 의해 변종 바이러스로 확산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가설은 중국 정부가 미래의 세균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한 폐렴세균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라면서, 약간의 상상력이 동원된 추정을 말하기도 한다. 실제적인 답의 정확성을 넘어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로 계속 확산되는 이 일들에 대해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아직도 아무런 치료제나 백신을 찾아내지 못한 채 격리와 예방에만

원해서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명령을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중국 공산당이 종교까지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기인한 행동들이다.

지도자의 교만과 공동체

필자도 몇 년 전 중국의 내륙 깊은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륙의 해안가 쪽을 중심한 대도시의 발전상에 비해 내륙은 그야말로 아직도 한국의 70년대를 연상케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람의 많은 숫자를 이용해서 국가의 부는 축적했는지 몰라도, 국가의 통치자로서 시진핑과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마음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위태로운 자리로 내어몰아가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이후 국가가 가진 그 엄청난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종교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특히, 성경을 통해 주목할 것은 공동체의 지도자 한사람의 교만은, 그의 개인적 성향의 교만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통치하는 국가의 기능 전 영역에 그 사상들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패배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전백패하고 말 것이다.

성경의 예들을 보라.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결국은 그 백성과 병졸들과 자신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것을 본다. 사울왕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를 대신하여 싸우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더욱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한 날 한시에 세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은 찾아오지 않았

단순하면서도 자명한 원리이다. 그러나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편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시키려고 하거나, 신앙인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말로 확립하고자 할 때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서 나왔기에 복종하지만 그 권세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들을 국민들을 위해 정당하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3-4절은 말씀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선하고 정의롭게 사용하여,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칭찬을 행하고 두려움을 주지 않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중국은 현재 우한폐렴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갈수록 확산되어 중국이 마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한폐렴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은 어떠해야 합니까?

-토렌스에서 장 집사

**A:** 우한폐렴, 즉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어 온 중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확진자가 4만명, 우한뿐 아니라 12개 성(省) 76개 시에 봉쇄령이 내려져 현재 5억의 시민이 격리되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한폐렴으로 전 중국이 마비되고 있고 그 전염병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 시진핑 정권이 정권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게다가 어려운 경제는 폭망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을 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시각을 저는 2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 이것은 종말론적인 징후(Eschatological Symptoms)입니다. 종말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것을 계시록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한폐렴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것으로 내다 봅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면 생화학무기나 세균무기로 인간은 큰 고통

우한은 교회핍박 가장 심한 곳...종말론적 징후

과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핵과 함께 생화학무기 및 무서운 세균무기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시대(End time)입니다.

둘째, 이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진핑 정권의 신문화혁명에 대한 하나님의 책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일보의 주필인 옥세철씨는 중국에 종교를 핍박하는 신문화혁명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2.10, 20).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중국 공산당, 더 나아가 핵심지도자인 시진핑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한에 바 이러스가 생겼나? 우한 중국 지하교회에서 보내온 카톡을 누가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한은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핍박이 중국에서 가장 심하여 우한의 지하교회 48개를 폐쇄시키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수백명의 선교사들도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규제정책을 지휘한 가장 높은 부서의 사람이 우한폐렴 1순위로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겉은 인자하고 마음씨 좋은 신사같이 보여도 붉은 용, 적그리스도로 점점 수가 늘어나는 기독교를 공산주의의 적으로 알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문화혁명을 통해 중국내의 수많은 교회를 불도저로 밀어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종탑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을 감시하고 교회에도 중국 국기를 걸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게 하고 예배시간에 중국 선전시간을 넣고 수만 명의 교회지도자들을 감옥에 수감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회교 불교 도교도 박해대상입니다.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약사상 바이러스입니다. 한국도 많이 감염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국민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책임

- 권세, 교만, 회복

집중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큰 도시들이 유명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행정조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적인 해석이 있다. 한국교단에서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지시면서, 선교의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의 해석과 견해이다.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이 발생한 것이 지난해 12월 13일 즈음인데, 이때를 즈음해서 중국정부가 법을 한 가지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한폐렴이 발생할 즈음에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 명령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하라는 명령들이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번 본 신문에 게재된 바와 같이 교회의 전면 벽의 좌우에 모택동과 시진핑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교회에는 외부에서 볼 때 심자가를 세울 수 없도록 하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당 건물마저도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

상상할 수 없는 교만함에 이른 상태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경의 증거를 제시한다. 레위기 26:16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더불어 19절의 말씀에는 폐병인 폐렴과 열병의 창궐함으로 눈이 어둡고,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된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세력(힘)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눈(구리)을 땅에 발라놓은 것처럼, 땅이 숨 쉬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심이 이루어진다고 진단한다. 중국이 위낙 사람이 많으니, 일을 많이 시켜서 인민은 가난하더라도 중국은 돈이 많고 부요하지만, 저들의 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무리한 적용은 아니다. 예배당에 자신들의 사진을 걸어두는 그 거만함과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행하는 악이며,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그러한 거대한 교만을 결코 죄없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에 분명하다. 실제, 우한폐렴과 '중국정부의 종교단체 행정조치 명령'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교만'이다.

교만과 겸손, 승리와 불행

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원망과 불평하기 쉬우니,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는지, 그저 하나님 배부시는 오직 은혜를 의지할 따름이다. 우한 폐렴의 일로 중국 사람의 불만이 가득함을 본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 앞에 시진핑과 공산당이 항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들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치자 자신에게도 구체적인 큰 고통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통치자의 방향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게 됨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 대한민국

우한폐렴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중국정부의 교만을 꺾기 위해 출몰한 것으로 일견 해석되는 우한폐렴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큰 피해 없이 집권 세력들을 위시한 위정자들의 좋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그러나 일말 불안한 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진영논리 안에서 집권연장의 목적만을 위한 독선적 행위들과 성경의 원리와 어긋난 각종 사회주의 편향의 정책들을 언급할 수 있다.

성경은 가르친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한다. 너무나도

야 한다. 더불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려울 정도의 권세를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혼용되어 통치자의 입맛대로 진영논리 안에서 행해진다면 결국은 불행한 선대의 통치자처럼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회복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교만함들이 곧장 패망의 지름길 이 되고 그를 통치자로 세운 국민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무릎이 간절히 필요한 때이다.

미국, 청교도 신앙의 회복

가장 최근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피트 부티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젊고 참신해 보이고, 강단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젊은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소개하는 가족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의 결합으로서의 부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1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신앙의 나라로 미국을 생각하는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과연 미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까?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의 품격도 원래 미국이 지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은 온 세계를 향해 기독교적 정신의 나눔과 베품이 풍성한 것이었는데, 현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국가주의에 불들려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면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이 있을지라도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급격히 기울어진 동성애의 대법원 합법화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을 최소한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님 잘 섬기며 축복받은 미국이 한 없이 기울어져가는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고, 옛적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이 풍성한 세계 일등국가로 되도록 정 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도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다.

중국, 한국, 미국-기도

중국의 우한폐렴이 속히 물러가도록, 중국의 교회핍박의 일들이 멈추고 중국의 시진핑이 겸손히 행하기를 기도드린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정부가 하나님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좋은 정책들을 펴가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정부가 되도록 기도드린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옛적같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거절할 험한 이 대륙에 건너와서 교회부터 세웠던 아름다운 신앙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davidnjoh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푸미(Pumi)

3 만 명 이상의 푸미족이 중국 남부 윈난성의 북서부 고산 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55개 공식적인 소수민족 중 하나다. 언어는 푸미어이며,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다. 티베트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점차 한자로 전환되고 있다.



푸미족의 선조들은 티베트 고원의 유목민이었다. 1000여 년 전 춥고 고립된 고지대를 떠나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지역을 찾아 쓰촨성 지역으로 이동했다. 14세기까지 윈난성으로 이주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 수십 년전까지만 해도, 푸미족은 매우 원시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실제적으로 현대 문명과는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1949년 공산혁명과 봉건제도의 붕괴 이후에 생활수준은 다소 개선됐다.

생활

푸미족의 대부분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경지는 2,500미터 이상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작물은 주식인 옥수수과 쌀, 밀, 고산지 보리 등이다. 그외 흔한 열매와 채소류로는 양배추, 당근류, 가지류, 멜론류가 있다. 푸미족은 양봉을 하고 소, 양, 닭,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른다.

푸미족 마을은 양지바른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가옥은 통나무로 지어지며, 나무판자로 만든 지붕이 있다. 집은 2층으로 돼있는데, 아래층은 창고와 가축우리로 사용된다. 가족들은 위층에서 생활하며, 난로가 위층의 중앙에 위치해 사람들의 생활중심이 되고 있다.

푸미족 여인들은 지역에 따라 독특한 고유의상을 입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편에 단추가 달린 상의 위에 조끼를 걸치고 주름진 통치마를 입는다. 다른 곳에서는 치마보다는 바지에 짧은 코트를 입는다. 거의 모든 푸미족 여인들은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를 하며, 대부분은 긴 양가죽 코트를 어깨 위에 걸치고 있다. 의복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쓰는 커다란 두건이다. 벗었을 때 두건의 길이는 4미터에 이른다.

푸미족의 결혼풍습은 일부 일처제다. 대부분의 결혼은 부모들에 의해 결정되며, 과거에는 신랑신부가 어렸을 때 정혼하기도 했다. 푸미족 결혼식은 노래와 춤, 잔치로 이루어진 다.

신앙

전통적으로, 푸미족은 티베트 불교로 알려져 있는 라마불교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는 없는 의식과 미신적 습관이 상당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조상을 섬기고 가정 수호신을 믿는다.

불교에서는 인생이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생사의 연속적인 순환이라고 가르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이 순환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상태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앎, 생명존중, 자기부인, 명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며 그 중에 하나가 정통불교와 전통 티베트식이 결합된 티베트 불교다.

불교다.

필요

푸미족의 생활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에 엄청난 가난한 농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래 중국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신규투자자의 많은 부분이 주요 도시에 이뤄지고 산업과 무역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는 진보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양식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나 수도, 보건시설 없이 살고 있다. 또한 모든 중국 내 민족 집단과 마찬가지로 강압적인 공산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신종 코로나 中 사망 900명 넘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돌파했다.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면서 베이징 등 주요 도시는 거주자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봉쇄식 관리'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외 다른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줄고 있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예상보다 빨리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 기대도 조심스레 나온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0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시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만171명, 사망자는 9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3062명, 사망자는 97명 각각 늘었다. 발병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은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2618명 늘었고 사망자도 91명 증가했다. 하지만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890명을 기록한 이후 4일 731명, 6일 696명, 8일 509명, 9일 444명으로 6일째 감소세를 보였다. 후베이성 봉쇄 등 통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안 립킨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온이 상승하는 2월 말이면 확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까지 이른바 '1선 도시'로 불리는 대도시들은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주거단지의 '봉쇄식 관리'에 들어갔다. 베이징시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 진입을 증명서가 있는 거주민과 차량으로 제한했다. 단지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체온 측정에도 응해야 한다.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은 지난 7일 모든 아파트 단지의 봉쇄식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상하이도 비슷한 상황이다. 충칭과 랴닝 등 다른 지역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후베이성 황강과 저장성 항저우 윈저우, 헤이룽장성 하얼빈 등은 이틀마다 가구당 1명씩만 외출해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하는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허난성의 주마옌은 5일마다 가구당 한 차례 외출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가 발생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판공실은 전날 쓰촨성 난중시 시충현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가금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후베이성 남부에 위치한 후난성 사오시 왕칭구의 한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보고된 AI는 쓰촨성 농가와 달리 H5N1형이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는 20일 넘게 체온 변화 등 특별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신종 코로나 환자의 사례를 보도했다. 중국 과학망에는 신종 코로나 잠복기가 최장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증상 기간이 지속되는 환자의 사례나 잠복기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는 신종 코로나 예방·통제에 큰 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샌더스-부티지, 두 번째 대결도 점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초반 구도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간의 '신(新) 양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 앞서 민주당 경선 개박전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조박빙 대결을 벌였던 두 사람은 2차전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글로벌·서독대학·WBZ-TV가 지난 7~8일 뉴햄프셔주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가 2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부티지가 2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3%로 3위를 지켰고, 바이든은 10%로 4위에 그쳤다.

부티지가 상승세를 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같은 기관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는 24%, 부티지는 15%였다. 불과 나흘 사이에 샌더스는 제자리인데, 부티지의 지지율은 15%에서 7% 포인트 급상승한 것이다.

CBS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5-8일 뉴햄프셔주의 성인 1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가 29%의 지지율로 부티지(25%)를 눌렀지만 오차범위(±4.4%) 내에서 실제로 누가 우세한지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N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4-6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샌더스(23%)가 부티지(20%)에 3% 포인트 앞섰지만 이 격차 또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사실상 공동선두라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 경선이 실시되기 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칠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좀처럼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에 그쳤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3-4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은 조사기관에 따라 10-14%의 지지를 뉴햄프셔주에서 얻었다. CBS·유고브의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샌더스와의 17% 포인트 차, 부티지와는 13% 포인트 차로 각각 뒤져 있다. 따라잡기 쉽지 않은 수치다. 바이든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추락하면 기사화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 3일 '슈퍼 화요일' 경선부터 참여하는 중도 성향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바이든의 부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바이든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기를 펴지 못하고 추락할 경우 그 틈을 블룸버그 전 시장이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예기다.

뉴햄프셔 열투를 앞둔 민주당 주자들은 말씨름을 이어갔다. 부티지지는 9일 CNN에 출연해 바이든이 "부티지지는 버락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가 맞다. 나는 (오바마가) 아니다"면서 "그도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한국전쟁 때 교인증명서, 통행 가능한 신분증

서울 영락교회(김윤성 목사)가 1952년 8월 1일 발행한 교인증명서는 가로 8cm, 세로 12.5cm 크기로 휴대하기에 편해 보였



다. 앞면에는 '영락교회 교인임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교회 직인이 찍혀 있다. 당시 교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간 상태였지만, 증명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라는 주소를 당시 맞춤법으로 기록했다. 한경직 목사가 세운 서울 영락교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뒷면에는 앞면의 내용이 영어로 수록돼 있고 맨 아래 한 목사의 친필 사인도 들어 있다.

이 증명서는 주근원 사모에게 발급된 것이다. 주 사모는 영락교회 농아인부를 맡았던 박윤삼 목사의 부인이다. 김성보 영락교회 은퇴 안수집사는 10일 주 사모의 사연과 함께 교인 등록증을 국민일보에 공개했다.

전쟁 당시 교회들은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인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런 증명서는 68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후 자취를 감췄다. 그동안 일부 교회의 교인증명서가 공개된 일은 있지만, 발급 목적과 용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드물다.

주 사모는 한강을 건너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은 민간인들의 한강 도강을 통제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거나 공신력 있는 신분증 없이 도강을 시도하다 잡히면 재판에 넘겨지곤 했다.

서울 중심부로의 빨치산 유입이나 종북 인사의 월북 시도, 불순분자의 남하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신분을 증명하기 어렵던 시절, 교인증명서가 신분증으로 활용된 셈이었다.

6·25전쟁사를 전공한 군사편찬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52년 7월 한국후방군사령부가 만들어진 이후 후방과 전방을 더욱 철저히 분리하면서 한강 통행이 어려워졌다"면서 "한강도 전후방을 가르는 경계 중 하나로 도강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했고 없으면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52년 8월 1일 발행된 영락교회 교인증명서도 한강을 건널 때 요긴하게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사모가 한강을 건넌 이유는 영락교회 재건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김 집사는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 갔던 영락교회는 서울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적지 않은 교인을 서울로 파견했다"면서 "영락교회 1호 장로인 고 송성찬 장로가 대표적인 교회 재건 요원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다.

이치만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 연구 가치가 큰 사료를 갖고도 가치를 모른 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격변기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서 "제3차 종교자유장관급회의"

미 국무부가 "제3차 종교 자유 장관급 회의"를 오는 폴란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과 폴란드의 공동 성명"에서, 이 회의가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각국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 종교·인권 관련 대표자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회의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FA는 "지난 2018년 7월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에 탈북민 지현아 씨가 초대됐던 것처럼, 올해 행사에도 실제 탈북민이 참석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현아 씨는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했다"면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열린 1차 회의에는 약 40개국 외무장관과 80개국 민간단체 등이, 지난해에는 약 80개국에서 1천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5일 '국제종교자유연합'(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lliance, IRF Alliance)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이들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교 박해를 끝내자고 촉구함에 따라 출범하게 된 이 연합체에는 폴란드, 호주,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27개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

종화권민주운동기틀, 우한폐렴관련 中정부 규탄

지난 9일 텐안먼 시위 주역 왕단(王丹)을 포함한 종화권 민주운동가들 21명이 중국 정부에 촉구문을 발표했다. 다이를로그 차이나 한국대표부가 밝혔다.



종화권 민주운동가들은 촉구문을 통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는 천재(天災)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재이다. 리원량(李文亮) 의사가 적시에 한 경고는 정부에 의해 묵살되었고, 각급 관리들은 이를 은폐하고 방제보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한 것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큰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당국의 인민의 언론 자유 박탈을 규탄하는 국내 일부 사회 각계인사의 호소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촉구문에는 왕단, 왕군타오, 우얼카이시, 후핑, 쑤샤오강, 옌지아치, 리아오이우, 천지아더, 캉정궈, 타오윈산, 왕차오화, 상시아오지, 리진진, 탕바오, 진엔, 펑충이, 무정화, 쟈중주, 황웨이구, 리바오양, 왕안나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우리는 최고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리원량 의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를 계기로 '종화권 민주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모든 정책을 폐지하고, 중대한 사안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천쑤스(陳秋實)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인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국무원은 2003년 '돌발성 공공위생 사건에 관한 응급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각급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비상 지휘부와 응급 예비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우한(武漢)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각급 정부는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전염병이 발생한 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체제의 안정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인민의 위생 방역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전염병 확산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체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례화된, 상부의 명령만을 위하고 하나의 최고 의사결정만 존재하는 악습의 폐단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재난이 지나간다고 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중국은 다음에 더 큰 재난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인민은 또다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매번의 희생을 통한 깨달음은 헛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91. 김준성(1900-?)

김준성은 1900년 3월 3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출생했다. 그는 10살에 캐나다장로교 선교부가 개척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서울의 장로교 미션스쿨인 경신학교에 입학했다.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고향인 단천으로 내려와 그곳의 만세운동에 가담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3년 일본 동양대학에 입학한 지 약 1년 후 일본 대학으로 전학해서 1928년에 졸업했다. 일본대학에 재학 중 교사자격증을 얻어 그는 성진 보신여자고등보통학교, 회령 보흥여자고등보통학교, 함흥 영생고등보통학교, 만주의 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신학석사학위를 받은 그가 1941년에 보스턴대학원에 등록했는데 뉴저지의 드류신학대학에 입학했다.



김준성

김준성은 뉴욕 한인교회에 출석했다. 1941년 11월 23일 저녁 6시 30분에 추수감사절 만찬회가 있었는데 40여 명이 모인 중에 김준성도 있었다. 본 교회 식당에서 일반 교우들이 모여 한국식으로 준비한 만찬이

결식을 행하고 그날 발인하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동포가 많이 참석하여 성대하였고, 뉴욕한인교회와 국민회 뉴욕 지방회는 조화를 보냈다.

그달 24일 하오 6시 30분에 뉴욕 한인교회에서 임창영 목사 송별회와 김준성 목사의 신임환영회가 있었다. 먼저 정식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박리근 부인이 특별히 차린 만찬을 나누고 교회 부인회가 준비한 선물을 목사에게 드렸다. 이후 김영육의 사회로 송별회가 있었다. 정기원 박사의 의

미심장한 송별사와 환영사가 있던 다음 박리근 내외와 류순기 내외와 조홍식 부인이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므로 송별하는 순서를 겸하였다. 떠나는 임 목사와 박리근에게 기념품을 진정하였고 이들의 답사가 뒤따랐다.

김준성의 중대 사역은 교인의 통합이었다. 임창영 목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수의 신학생 그룹이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김준성이 중재역을 담당하여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학생회를 도와 영문회보인 The Free Korea를 창간하고 주필이 되었다. 매일 3천부를 인쇄하여 3년간 미국정부 관원들과 국회의원과 기타 애국 사회 요인들에게 배부해 독립과 해방운동에 이바지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최 풀이 1942년에 중군을 하였다. 이에 그의 중군을

중 죽음을 맞았는데 그의 딸 아이린이 시카고에서 부음을 받고 뉴욕에 와서 발상하였다. 임성호의 주선으로 장의를 갖추어 그달 8일 뉴욕 한인배대에서 김준성의 주례로 영결식을 행했다. 고향 친구인 김 경은 고인의 약력을 담당하였다. 롱아일랜드 매장에 안장하였다. 그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1905년에 유학자로 도미하였고 향년 54세였다.

그달 17일에 뉴욕한인교회 집사이자 국민회 뉴욕 지방회 서기이고 뉴욕한인 음악구락부원인 최중군이 학생 신분으로 태평양전쟁에 종군하여 미국 육군에 입대했다. 이에 위의 세 단체의 주최로 연동루 식당에서 중군 축하식이 있었다. 윤성덕 여사의 식사 후 국민회 대표 정기원 박사와 교회대표 김준성 목사 그리고 음악구락부 대표 차진주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육군 복무 중인 이성훈을 축하하였다. 최창수는 답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의로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달에 김술근이 뉴욕한인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유지금을 기부하였다. 그는 얼마 전에 별세한 부친을 기념하여 본 교회에 피아노 한 대를 기증했다. 그는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수리와 교사로 근무하다가 도미하여 서북대학에서 공부하고 화학사 학위를 받았고, 그 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보스턴에 있었는데 5개월 전에 자진하여

다음 달 2일에 뉴욕에서 경제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카이로 선언으로 연합국의 루즈벨트와 처칠과 장개석 등이 전후 한국 독립을 약속하였으므로 전쟁 후 한국이 독립하고 근대적 산업국이 되어 국제에 견고한 기초를 건설하여 2천6백만 동포의 생활 번영을 보장하려면 장래 한국의 공업, 산업, 농업, 무역 등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고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획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연구회가 조직되었다.

당일 준비금으로 약 2천불을 모금하였고, 경제연구회 임시조직을 결의하였는데 김준성은 정기원, 류일한, 배민수, 김세선, 김성덕과 함께 장정 제정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임시의장에 류일한, 임시 서기에 김성덕, 임시 재무에 정기원과 김진억, 임시 선거위원에 김 경, 김세선, 전처선, 김진억, 선우천복, 통신 및 선전 위원에 이종숙, 김성덕, 김진억을 선출했다. 그런데 6개월 후 김준성은 배민수, 전처선, 김세선, 선우천복, 김진억, 이종숙과 함께 본 연구회를 탈퇴하였다.

### 1934년 토론토 임마누엘신학교를 거쳐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드류 등서 공부 1942년 5월 뉴욕한인교회 5대 목사, 1956년 롱아일랜드한인교회 설립후 행적묘연

있던 다음 박리근의 사회로 임창영 목사와 지방감리사 피어슨 박사와 뉴욕감리교 총무부 재무 누겔 박사를 표창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임창영의 주선으로 드류신학대학에 다니던 김준성이 1942년 5월에 뉴욕한인교회 제 5대 목사가 된다. 당시 교회주소는 633 W. 115th Street였다. 그의 영문 이름은 John Starr Kim이었다. 그의 이름 '준'을 한글로는 '요한'으로 번역되는 'John'으로 그리고 '성'을 '별'이라는 의미의 영어 'Star'에 알파벳 'r'을 하나 더 붙여 'Starr'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의 첫 사역은 조홍식의 장례식 주례였다. 뉴욕 지방회 회원이자 '신한민보'의 통신원인 조홍식이 오랫동안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페슨 병원에서 신병 치료를 받았는데 의약이 무효하여 1942년 5월 3일에 세상을 떠났다. 작년에 결혼한 부인 이월련 여사와 6개월 된 어린이를 남겨두었으니 애석한 정경은 인세 상망 중에 가장 비참한 일이었으므로 그 유족과 친구들이 애도했다. 그달 5일 필라델피아 장의사에서 김준성의 주례로 영



뉴욕한인교회

축하기 위하여 그해 12월 10일 하오 6시 30분에 연동루에 축하만찬회를 열었다. 다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구락 지도자 윤성덕이 의식을 담당하였고, 이어 뉴욕한인교회 목사 김준성과 음악 구락부원의 축사가 있었다. 내빈 중에서 출사가 한 자가 많았다. 이어 최 풀의 답사가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여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짐했다. 모임 후 그의 친구 전창수가 후식을 대접하고 11시에 폐회했다.

1943년의 새해를 맞이한 나흘째 날에 이관하가 별세했다. 작년 9월에 입원하여 위장병의 수술을 받고 치료

세계 제2차 대전에 종군하여 육군사사가 되었다.

1943년 10월 30일에 김현철의 부인이 별세했다. 김현철은 몬태나에서 다년간 농사를 경영하다가 3년 전에 뉴욕 롱아일랜드 그랜코브로 이사했다. 김현철의 부인은 서울 출생으로 향년 52세였는데 기독교에 신실한 부인이었다. 7남매를 이 땅에 두고 돌아갔으니 김준성의 주례로 열린 11월 3일의 장례식은 눈물바다였다. 다행히 사위 한기만과 친구 스페리 자이 로스컴 회사 사장 R.E. 길모어 내외와 뉴욕의 김진억 등이 참석하여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해 11월 17일 하오 8시에 뉴욕한인교회에서 국민회 주최로 정기원의 사회 하에 순국선열 기념식이 있었다. 이 기념식에서 김준성은 기념사를 담당했다. 그의 기념사는 애국가 함창, 김 경의 기도, 국기 경례식, 정기원의 식사와 선열 사적 보고, 광정선의 첼로 독주 후에 있었다. 그의 기념사 후에 배민수 목사의 소감과 일동의 묵상 후에 폐회했다.

김준성은 교회에 거주하면서 모르고는 혼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봉사를 자원하여 교회 당 내부를 전부 수선하여 코퍼 피아노를 새로 개설하여 페인팅과 계단과 피아노와 주방 시설과 지하실 수선 등 건물을 고쳤다.

안익태가 애국가를 완성한 곳이 뉴욕한인교회로 알려져 있다. 1944년에는 김준성이 안익태의 애국가를 영어로 번역해 영문 악보 수백 장을 인쇄해 배포했다. 2월까지 한글 가사의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의역해 멜로디에 맞도록 제작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행사가 초정된 주류 사회 정척인 등에게 가사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1부에 25센터였고, 10부 이상 주문할 경우 할인해 주었다. 당시 안익태가 사용했던 어머니 피아노가 본 교회 지하에 보관돼 있다.

박사학위를 위하여 드류대학으로 갈 예정이었던 김준성을 이어 배민수가 본 교회 목사가 되었다. 1944년 12월 28일 배민수의 목사 환영 특별 예배가 있었으므로 김준성의 목회는 약 3년이 된다.

1956년에 김준성이 뉴욕 자마이카 지역에 롱아일랜드한인교회를 창립했다는 보도 이후 그의 족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damien,sohn@gmail.com

#### 뉴욕한인교회

김준성은 1934년 캐나다 선교사 주선으로 토론토의 임마누엘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신학교를 졸업한 1937년에 프린스턴신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40년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7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침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3,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점심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6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6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호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수요일: 오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광안동 416-4(404-270)	<b>승중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ichong.org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05-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520 (158-808)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신학생: 오전 8: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흥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 제 4권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의 “고백록” (3)

2)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기 위해

그의 ‘고백록’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회이상,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그의 ‘고백록’을 통해 자신의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말함으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 인간들이 돌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는 이차적인 것으로 자기도 모른 채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

리 기독교시대(Tempora Christiana)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로마시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며, 이 후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 비추어 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때 그는 제국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속 깊이 들려주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게 하고 싶었다.

4. 신학적 사상집으로서의

시점과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0권에서는 회심의 주체인 자아와 그의 기억을 통한 성찰을 통해 시간과 영원에 대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부분인 11권부터 13권까지는 창세기 해석을 통해 그 당시 유행했던 다른 사상들을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있다. 이처럼 고백록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신학적, 철학적 사상집이라 할 수 있다.

#### 2) 자기성찰의 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전제된 자기성찰의 부분에 대해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오, 주님,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당신은 나를 나 자신으로 돌이켜 자기성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기 싫어서 이때까지 내 등 뒤에 놓아 두었던 나를 당신은 잡아떼어

베풀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자기성찰 없이 본래부터 착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리석고 단순한 아이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자기성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자기성찰을 회피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고 표현한다. 인간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은 부끄러운 자신을 똑바로 대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을 대면하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찰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 3) 자기성찰의 이유로서의 시간개념

그가 그토록 회피했던 자기성찰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그의 변화된 태도는 무엇 때문일까? 이런 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

내 얼굴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비뚤어지고, 더럽고, 얽혔고, 종기투성이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보기 싫어서 나를 피해 어디로 가고 싶었으나 갈 곳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기성찰을 하도록 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반성적 시각 없이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영향을 받은 칼빈도 그의 기독교강요 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명한 논지를 펴고 있다.

이것은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이렇게 더럽고 참혹한 자신에게 끝없는 관용과 은총을

은 그의 시간의 관념에 대한 이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고백록’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는 시간의 비밀이자 인생의 비밀로서 우리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다. 시간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이며 죽음은 절대적 도착점인데, 그는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간을 영원의 부름이란 해석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허락된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결국 우리 삶의 최종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종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younsklee@hotmail.com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 꼭 필요한 한가지

지난주에 어느 교회로부터 여전도회 헌신예배 때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다. 갈 수 있다는 답변에 일주일 안으로 설교제목, 본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평소 애 기본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 목사가 아니어서 갑자기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부담이 되었다. 여전도회 헌신예배라 해서 주님을 섬긴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제로 “꼭 필요한 한 가지”로 제목을 정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틈틈이 아침 식사시간과 밤 시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준비를 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세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도 하고 각 복음서의 기록을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원고를 정리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설교하기로 한 금요일에 너무 많은 약속이 잡히게 되었다. 이를 전부부터 갑자기 열거하자 아파서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헌신예배가 있는 금요일 아침에 병원에 오라고 했다. 사역에 관계된 일로 우리교회 북부사님 두 분과 점심식사를 하기로 미리 정한 날도 마침 그 날이었다. 오래 못 만난 친구 사모님이 설교를 하러가기로 한 교회로 같이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금요일 아침 병원으로 떠나려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제자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혹시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점심은 이미 약속이 있으니 설교할 교회 가까이에서 오후에 차를 마시자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아침부터 저녁 설교할 때까지 불 일이 네 개나 잡힌 것이었다. 원래 계획은 점심식사 후 교회부근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조용히 설교할 내용에 대한 마지막 터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약속들로 전혀 조용한 시간을 못 갖는 채 교회로 향했다.

준비한 설교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로서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분주할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마르다의 신앙고백을 읽을 수 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고백과 매우 흡사한 고백을 한 마르다는 믿음의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은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느라 너무 분주해졌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서 분주함이 마르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대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 것을 지적하셨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즉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시편 27: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에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목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설교의 요지였다. 적용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목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했고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추구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권했다.

설교를 마친 후 아침 타주에 갔다가 오는 딸을 예배 후에 픽업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와 있어서 친교도 못하고 서둘러 공항으로 떠나야 했다. 급하게 교회를 나오려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치면 설교가 잘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죽을 췌었는지 스스로 느낀다고 들었는데 공항으로 운전을 하면서 내가 설교를 죽을 췌었는지, 계획했던 마지막 조용한 시간 없이 설교를 해야 했던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죽을 췌었는지 잘 모르 채 잠자리에 들었다.

(10면으로 계속)

## 자기성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결정적 순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그의 변화는 삶과 죽음 문제로 접근, 시간의 관념에 대한 이해에서 발견

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흐름

#### 3) 명목상 신자에서 벗어나도록

먼저 그는 자신이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환경에 대해 이해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콘스탄틴 황제 이전의 교회는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였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실존적 결단을 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박해가 끝난 후의 기독교는 로마제국 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종교가 되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내적인 결단도 없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347-395)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선포한 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악화되었다. 소

#### 1) 고백록의 뛰어난 부분인 자기성찰

그의 고백록의 흐름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권부터 9권까지이다. 여기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회심을 정점으로 지난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며 그 방탕과 교만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관용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특히 그의 고백록에서 뛰어난 부분으로 일컬어지는 8권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회심하는 장면은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이지만, 그의 고백록을 보면 이에 못지않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회심 직전 그가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는 고백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8권 7장 전체를 ‘자기성찰’이라는 주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한 인간이 종교적으로 변화하는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046</p>	<p><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문지, 유년, 중고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형찬양회: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애, 유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소열린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노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1), (254)501-4933(2)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 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파요”

최근 제가 섬기는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성품이 착하고 신실한 여 교우님이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좋은 교인이 되겠다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오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나중 보고를 받아보니 그분의 아드님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우연히 제 스마트폰의 확인하지 아니한 메시지를 열어보니 그 분이 제게 보낸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와 오랜 교제가 없어서 인지 전화를 못하고 메시지를 제 전화기에 남겨 두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많이 아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읽고 스마트폰 활용을 등한히 하는 나의 실수를 깨닫고 늘 신중하게 메시지를 열어 확인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였습시다. 아들의 아픔을 제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 오신 것만 생각을 하였으니 목회의 심각한 엇박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목회는 목회자를 믿고 신뢰

하며 끊임없이 보내오는 사랑 하는 교우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절규일 수도 있고 애원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 곧 메시지를 듣는 데서부터 목회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많이 아파요”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목회자들이 향해 말씀하시는 목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과 보내시는 메시지를 확인해야 함을 새롭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주님이 보내오시는 여러 가지 신호와 메시지를 잘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목회를 하고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양심을 향해 보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환경을 통해서 신호

를 보내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열어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둔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후회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여 늦은 후회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편지함인 성경을 열어 그 속에서 말씀 하시는 그분의 메시지, 곧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인생의 엇박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메시지를 열어보

지 아니한 실수로 인한 엇박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세대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새롭게 열어 보는 마음으로 요한 계시록 서두를 중심으로 얼마간 ‘맛보섬에서 온 편지’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많이 아파요” 이 한마디는 앞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제게는 큰 도움과 오랫동안 기억 될 큰 교인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보내어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맙시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확인 하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KAPC 교육부 주관 2020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성애문제, 어떻게 교회 지켜야 하나’

KAPC 교육부 주관 2020 목사장로 기도회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교육부가 주관하고 KAPC남가주노회가 주최한 미서부 지역 2020 목사장로 기도회가 ‘동성애 문제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나’ 주제로 시미발리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에서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렸다.

‘비성경적인 성교육의 실제’라는 주제로 김태오 목사와 세라김 사모(TVNEXT)가 강의했다.

김태오 목사는 “다음세대는 쓰나미에 쓸려나가는 거 같다”며 “공립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15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역할 담당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라김 사모는 “동성애는 하나의 이슈지만 21세기 영적 전쟁”이라 말했다.

그는 “CSE의 성교육이 너무 문란하다. CSE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섹슈얼하다. 건강한 생활하려면 아이들도 정기적으로, 혼자서든 다른 사람과 성별 상관없이 성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낙태할 권리, 성관계할 권리가 있고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뉴욕에는 31개, 버클리에선 52개의 성별을 만들었다”고 학교성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식사 후 ‘21세기 영적전쟁 동성애의 실제와 오해’라는 제목의 강의시간에서 김태오 목사는 “21세기 영적전쟁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동성애”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악한세력은 연합을 잘한다.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사회주의건 동성애건 양성애건 패미니즘 등이건 하나되어 제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

은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악의 본성대로 다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것의 결말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않는다. 진화론 교육에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우리는 자녀교육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라 김 사모는 “동성애는 회복될 수 있는 중독 혹은 질병”이라며 “동성애자 단체들이 법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동성애자 논쟁은 인권존중이다. 그 다음은 결혼문제다. 8년간 정책으로 인해 자녀들이 하나님과 기독교는 빠져야 한다. 진화론은 “저들은 LGBT를 말할 때 우리의 목적은 LGBT여야 한다. LGBT는 Love Jesus Believe Transform이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권 목사(남가주노회) 인도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양수철 목사는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라’(눅18: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는 능력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 둘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 셋째,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큰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신다. 항상 깨어서 늘라온 응답받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조수아와 함께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를 마치고 조수아 집사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CD에 사인을 해주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선순위의 삶 살자

조수아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조수아와 함께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가 5일 오후 7시30분 로스앤젤레스은 누리교회(담임 이점영 목사)에서 열렸다.

조수아 집사는 “사랑나눔”이라는 단어가 작은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 큰 기적 같은 시간

이 될 것”이라며 “이민생활 유학생 등 고국 떠나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님 믿고 의지하기에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선순위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집사는 굿네이버스 나눔대

사 10년 사역을 돌아보며 “굿네이버스는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다. 일하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하루일당을 도와주면 학교로 갈 수 있다. 노동현장의 친구들이 하루 버는 돈은 작게는 500원 크게 1500원이다. 하루 천원이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한달 35달러면 한 아이를 후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영상도 소개했다.

이날 조수아 집사는 △내평생 사는 동안 △선하신 목사 △나의 사랑하는 책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함으로 불렀다.

(박준호 기자)

애국자 이승만, 안창호의 삶 발제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애국포럼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회장 김희창 목사)는 8일 오전 11시 말씀새로운교회에서 애국운동포럼을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그레이스송)를 초청해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발제자 김희창 목사는 감리교회 원로이고 이승만 안창호 가족이 몸담았던 교회 담임목사로 그의 박사논문 ‘이민공동체

갈등과 화해’ 저서에 기반해 이승만 안창호 두 애국자의 삶을 핵심적으로 언급했다.

김 박사는 이승만 박사를 잘 준비된 젊은 청년으로 이시왕 소 16대손으로 출생, 감옥에서 보낸 6년 가까운 연단에서 선교사가 넘어준 엄청난 책들을 독파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배재학당에서 공부, 19통의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갖고 미국

유학해 명문인 조지워싱턴대 하바드대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박사를 받은 준비와 훈련된 대통령으로 소개했다.

또 안창호 애국지사는 이승만 시대에 평안도에서 출생해 17살에 한성에 와서 허기진 가운데 전보선대에 붙은 전단지 보고 찾아간 곳이 장로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경신학교이었는데 도움을 받아 졸업 후 고향에 가서 점진학교를 설립해 농촌 계몽에 치중했고, 후에는 국민 복지에 치중했다고 소개했다.

(11면으로 계속)

Large church directory section title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t lists various chur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service times.



# 동부교계 게시판



## 퀸즈장로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46주년 기념 예배가 2월 23일(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장학생 선발이 함께 진행된다.

▲문의: (718)886-4400

##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슈터블라지역에 있는 에슈타블라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목회경험자로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고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내 사진포함), 최종학위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 1부 사본, 최근 6개월내 실고동영상 2편, 목사 추천서 2명 등이다. 제출마감은 3월 15일. 이메일(sddkim206@gmail.com)이나 우편(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440)822-9390

## 웨이스선교회 발족 및 이사장취임 예배

세계 가정기독교운동 및 선교를 중점으로 사역하는 웨이스선교회(Faith Mission) 발족예배 및 이사장 취임예배가 2월 15일(토) 오전 11시 뉴욕늘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장 윤세웅 목사, 회장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 권캐더린 목사가 취임한다.

▲문의: (646)270-9771

## 2020년 성경암송대회

주님의식탁선교회(대표이종선 목사)가 주최하는 2020년 성경암송대회가 10월 12일(월) 오전 9시 뉴욕조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미국내 한인교회 및 기독교단체 소속 한국어 및 영어권 누구나 나이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500달러 및 메달, 상장을 수여한다. 1차 신청마감은 6월말이며 신청료는 40달러, 2차 마감은 9월말로 신청료 50달러다. 신청마감은 9월 30일.

▲문의: (347)559-3030

# 3월 9일 미스바금식성회 등 발대식

## 제 48회기 뉴욕목사회 제1차 임실행위원회

제 48회기 뉴욕목사회 제 1차 임실행위원회가 2월 7일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원로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목사회는 △미스바대회 개금식성회:3월 9일(월) 오전 9시-11일(수) 정오, 뉴욕새힘교회(담임 박태규 목사),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 △부활절 연합찬양제: 4월 19일(주일) 오후 5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준비위원장 이재덕 목사 김정길 목사 △목회자수련회 및 선교지 방문: 9월, 준비위원장 지인식 목사, 발대식을 가졌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미스바 금식성회를 위해 인원동원과 광고 후원 및 기도를 당부했다. 미스바금식성회 강사는 한국



뉴욕목사회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에서 5명, 뉴욕에서 4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뉴욕강사 지원자는 신청해달라고 광고했다.

이날 회계보고는 전년도 이월금 128.77달러, 수입 10,727.32달러, 지출 10,522.91달러, 잔액 204.41달러(2월 현재)로 보고됐다.

회의에 앞서 한 예배는 김정길 목사의 경배와찬양 후 김희복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 말씀 문석호 목사, 합심기도, 광고 이기흥 목사, 축도 문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시라!”(요21:1-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람들이 배반하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다”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으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으로 처음엔 평안하라 하신 주님이 오늘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권면, 부탁, 명령)을 주셨다”며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고 실패해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베드로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과 성도를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심화자 목사(3월 미스바대회개금식성회의 성령충만을 위하여), 엄달호 목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정민 목사(뉴욕교포사회를 위하여), 이규형 목사(뉴욕교계를 위하여)가 각각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제43회 동부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21교회 소속 교회가입, 목사안수 허락 등

## 미주성결교회 제43회 동부지방회, 새 회장 임웅순 목사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가 2월 3일과 4일 롱아일랜드성결교회에서 제43회 지방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임웅순 목사(뉴욕온누리교회) △부회장 이상원 목사(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서기 이규연 목사(주동행교회) △부서기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회계 신승범 장로(뉴욕한빛교회).

동부지방회는 지난 회기 사역보고에서 △이스라엘 성지역내 사역자연장 현장교육 △'행복한우리교회'가 '우리사랑의교회'로 이름변경 후 신보회 전도사(미성대 졸)를 담임으로 지방회 가입 △보스턴 웨스트포드한인교회 류성창 담임 전도사 목사안수 청원 허락 등을 보고했다.

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직전 회장 황영선 목사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인생”(삿9:29-3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소명의 초심을 지키

는 삶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귀하게 보는 삶 △삼과 사역에 반드시 되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정찬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됐으며, 김석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다.

동부지방회는 뉴욕한빛교회(정원석), 롱아일랜드교회(이상원), 퀸즈교회(조승수), 뉴욕수정교회(황영송), 뉴욕소망교회(황하균), 뉴욕성령교회(김태근), 주담는교회(조인성), 해교회(박영표), 커네티컷믿음교회(이정찬), 새언약교회(권오철), 버팔로은혜교회(황유선), 토링톤한인교회(이근원), 뉴욕온누리교회(임웅순), 주동행교회(이규연), 뉴욕하모니교회(윤상훈), 보스턴중앙교회(송평구), 웨스트포드한인교회(류성창 전도사), 보스턴교회(전석훈), 보스턴제일교회(강영규), 보스턴주님의교회(박찬수), 보스턴필그림교회(박도술) 등 21개 교회가 소속돼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선교찬양축제 출연자들이 연합찬양 후 기념촬영 했다.

# 하나님찬양으로 영적면역체계 키우라!

## 뉴욕실버선교회 주최 뉴욕선교찬양축제

뉴욕실버선교회가 주최한 뉴욕선교찬양축제가 2월 9일 오후 4시30분부터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재열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1부 예배와 2부 찬양축제로 이어졌다.

김재열 목사는 “뉴욕실버미션이 2004년 뉴욕지역의 17명의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봄과 가을 선교훈련을 해왔다”며 “처음 센트럴교회에서 훈련하고 뉴욕의 각 교회를 순회하다가 이번 30기 훈련을 다시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그동안 800명이 훈련받았는데, 실버선교회가 뉴욕의 희망인 것은 목사나 선교사 못지않은 불덩어리를 가슴에 간직한 시니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열정으로 오늘 찬양제를 마련했으니 놀라운 실버선교회가 되도록 후원해달라”고 말했다.

1부 예배는 훈련위원장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황달연 장로(후원회장), 설교 양민석 목사(뉴욕교협회장), 헌금기도 손성대 장로(뉴욕교협이사장), 축

사 김홍석 목사(뉴욕교협증경회장), 광고 이형근 장로(사무처장), 축도 윤세웅 목사(KCBN이사장)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목적대로”(사43: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즘 신종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지만 건강하기 위한 영적 면역체계를 키우는 것 중 중요한 것이 찬양이며 그 이유는 찬양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찬송할 때 악한 영과 어둠이 물러간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찬양축제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는 박마이클 목사 사회로 ‘세계 평화의 대목소리’(뉴욕한국국악원), 뉴욕실버미션합창단, 늘기쁜 찬양대,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뉴욕교회 합창단, 뉴욕센트럴교회 찬양대 등이 출연해 찬양하고 마지막은 출연진이 모두 나와 “이 세상 어딜 가든지”를 부르고 막을 내렸다.

3부는 한재홍 목사의 식사기도 후 전교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가 뉴욕교협 및 뉴욕목사회 임원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뉴욕 교협 및 목사회 임원초청 간담회

## 뉴욕장로연합회, 10회기 임실행위도 겸해

뉴욕장로연합회가 지난 2월 6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교협 및 뉴욕목사회 임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인도 박성범 장로 인도로 시작한 1부 기도회는 김영호 장로 기도, 최성호 장로 성경봉독 후 양민석 목사(뉴욕교협 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양 목사는 “지금은 기도 할 때”(역대하7:12-16)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가? 각자 자문해보고, 눈으로 먹은 불신자가 되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장로연합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민석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이어서 2부 초청 간담회는 이보춘 장로 사회로 진행됐다.

회장 송운섭 장로의 환영사에 이어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회장)가 격려말씀을, 이창종 목사(교협총무)가 46회기 교협 행사를 소개하고 마바울 목사(목사회 총무) 48회기 목사회 행사를 소개했다.

정권식 장로가 10회기 장로 연합회 활동계획을 알렸으며 광고 신승룡 장로, 마침 및 만찬기도백달영 장로 순서로 진행됐다.

만찬 후 제 10회기 전반기 임실행위원회 회의가 송운섭 회장 사회로 열려 개회기도 안전섭 장로(다민족선교대회준비위원장), 회원점명 김요한 장로(서기), 개회선언, 회무안건에 들어가 △신년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결과보고 △2020년도 사업활동 계획 △202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채택 등이 있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 YCPT청소년 및 부모 대상 우울증 워크샵

지난 1월 31일 뉴욕가정상담소가 조세현 정신과 전문의(Mount Sinai, Psychiatry)를 초청, 청소년프로젝트팀(YCPT) 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부모 워크샵에는 13명의 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우울증 교육 및 청소년 우울증 대처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워크샵은 YCPT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교육세미나로, 청소년 프로그램 소개 및 리더십 양육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조세현 전문의는 YCPT 50명에게 우울증이 해, 호르몬 변화가 사춘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예방법을 교육하는 워크샵을 가졌으며, 의사 직업소개 및 의대 진학 절차 등을 교육했다.

YCPT 청소년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커뮤니티에 대해 배우고 리더십을 키우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학생 직업 탐구와 대학진학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다.

▲연락처: 관연혜 상담코디네이터(917-885-3889)

# CBSN합창단, 새생명선교회에 후원금 전달

CBSN(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합창단(지휘 이선경 교수)은 2월 4일 오후 8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2월 정기예배를 열고 새생명선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문석진 목사는 예배 중간에 지난달 26일 암환자를 돕기 위해 열린 CBSN 신년음악회(플러싱 타운홀)에서 들어온 수익금 전액을 새생명선교회 대표 심의례 전도사에게 전달했다. 심의례 전도사는 “너무도 감사하다. 새생명선교회는 2005년 1월, 6명의 암환자들이 강해진 내과에서 모여 시작된 기도 모임이다. 암 수술 후 치료 중에 있거나 또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선교회”라며 “새생명선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문석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년음악회를 잘 마쳤다. 합창단원과 출연해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CBSN 사장 문석진 목사(왼쪽)가 새생명선교회 심의례 전도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내내에도 또 콘서트를 하자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다. 우리는 찬양을 했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암환자를 돕고 있는 새생명선교회에 수익금을 전달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CBSN)



뉴욕가정상담소가 주최한 YCPT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우울증 워크샵에서 조세현 전문의가 강의하고 있다.

《8면에서 계속》 늘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쓰임 받은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까?”라는 마음으로 서지만 강단을 나누어주신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마음이 찢겨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부드럽

게 마르다를 꾸짖었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평혜야, 명혜야. 네가 어찌 너무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그러나 네가 설교한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나누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lpyun@apu.edu





미주한인 이민 117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후세대에 아름다운 삶 물려주길”

#### 미주한인 이민 117주년 기념행사 해단식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가 주최한 미주한인 이민 117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해단식이 5일 오후 12시 30분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김영구 목사 개회기도와 사회로 시작된 해단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다.

이병만 장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역자들이 많아져 기쁘다”며 “이민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많은 단체들이 수십 년 동안 부르짖었던 것이 차세대문제였다. 한인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이 없으면 단체를 이끌어가기 어렵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차세대들이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도와 격려로 이 행사를 이끌어가고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종용 목사(자문위원장)는 “우리 모두가 현재 삶에 충실해야 한다. 사랑하고 섬기고 진실된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민자로 빛과 소금 직분을 감당해서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나라 없는 백성은 비참하다. 동포들이 조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혜로 미국에서 미주한인의 날이 허락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통해 타인종과 화합한 것 감사한 일이다. 미주한인의 날이 아름답게 이어져 한인들도 은혜가운데 살고 후세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상 LA부총영사는 “남가주에 근무한 것이 자랑스럽다.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미주한인의 날 행사와 여러 행사를 보면서, 주류사회에 기여하고 문화적으로도 한국 발전을 전파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다민족 사회도 관여해서 전체적으로 승화됐다. 민원도 확장하고 발전적 모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아 대한민국’을 부른 뒤 샘신 목사 기도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유진벨재단 캘리포니아 후원자모임이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 북한내 다재내성 치료 전담

#### 유진벨재단 캘리포니아 후원자 모임

유진벨재단(대표 스티븐 린튼 박사) 캘리포니아 후원자 모임이 6일 저녁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스티븐 린튼 박사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며 ‘Out of Breath’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뒤 사역설명을 했다.

린튼 박사는 “유진벨재단은 지난 95년 설립, 북한기아대책에 참여하는 통로로 사용됐다. 교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당시 없었다”며 “당시 UN에 수표를 보내기도 했고 현금을 갖고 북한에 가다 역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벨은 북한지원이 자유로운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식량 및 구호 물품을 보내왔었는데 투명성 확보 등을 수월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후원자들이 유진벨에 수표로 보내게 됐다”며 “60콘테이너 둘째 해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결핵퇴치일을 맡아달라고 해서 하게 됐다. 유진벨은 후원

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린튼 박사는 “북한은 현재 다재내성 결핵환자들을 위해 12개의 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다재내성 환자가 기침하면 균이 나와 다른 사람으로 전이된다. 러시아 경우 3인중 1명이 다재내성 환자다. 북한의 경우 연간 6000명 정도 환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재내성 치료 집행을 유니세프도 함께 해왔지만 재정적인 이유와 유니세프에 대한 불만으로 유니세프 사역은 중단됐다. 다만 유진벨에서 다재내성 치료를 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린튼 박사는 “LA한민들이 심부름을 맡긴다면 기꺼이 하고 환자결도 하게하고 치료 선적은 6개월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린튼박사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국예배기독교인회 애국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김경진 담임목사 “교회도약 기회주심 감사”

#### 기쁜우리교회 설립3주년 감사예배 및 은퇴 임직식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은퇴 임직식이 9일 오후 5시에 열렸다.

김경진 목사는 “3년 동안 교회가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됐다.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나라를 드러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자 대표 김원국 장로는 “임직과 추대하게 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위에 열심히 섬기겠다”며 “임직 받은 자로 항상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살겠다.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 헌신 최선을 다하겠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

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겠다. 성령님의 말씀 의지해 함께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 주님께 칭찬받는 유익한 종의 삶을 살겠다. 끊임없는 격려와 기도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진 목사 집례로 열린 예배는 진유철 목사(나선순복음교회 담임)가 “나는 파르리아다”(눅9:57-6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2명의 장로, 1명 안수집사, 7명의 권사 은퇴식과 4명의 장로, 5명의 안수집사, 15명 권사에 대한 임직식, 5명 추대장로 추대식을 가졌다.

그리고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가 권면과 축사했으며 집례자가 임직자와 추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했으며 김원국 장로가 담사했다.

이날 예배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 창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은퇴 임직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벨리주하나교회 담임목사 취임 권사임직 교회통합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벨리주하나교회 교회통합 감사예배

#### 오정택 담임목사 취임, 권사 5명 임직식도

벨리주하나교회 오정택 담임목사 취임, 권사임직, 교회통합 감사예배가 9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찬양팀 찬양인도와 지성은 감리사(남서부 북지방) 집례로 시작된 담임목사 취임예배는 김민영 목사(벤티라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며 황원찬 장로(벨리주하나교회)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찬양대 찬양에 이어 은희곤 감독(미주자치연회)이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사55:3, 담전4: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은희곤 감독은 “벨리주하나교회가 갈수록 좋아지고 나아가고 부흥하는 생기 넘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며 “내가 신앙생활 잘함과 더불어 교회가 맑고 건강하게 잘 관리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관심이 높고 은혜 많이 베푸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은 감독은 “교회의 본질은 영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말씀이 크게 잘 들려야 한다”며 “벨리주하나교회는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교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면에서 계속)

LA에서는 그 가족들이 연합 감리교회에 출석했고 김 박사 목회 시에는 그 가족들과 막내가 출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차기학 목사 인도로 류당열 목사가 기도하고 미주3.1여성동지회가 찬양하고 김택구 목사가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제목으로 설교한 후 주 사랑선교무용단 찬양과 원태어 장로의 봉헌기도 후 최화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선종태 장로가 담임목사를 소개했으며 은희곤 감독이 목사취임 문답을 인도하고 담임목사 취임선포 후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어 오정택 목사 집례로 열린 권사 임명예식은 집례자가 권사소개, 임직문답했으며 권사선서, 임직패 증정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어 교회통합 감사 말씀을 김점태 장로가 했으며 윤일흠 목사(비전50선교회 대표)가 담임목사 권면의 말씀, 남강식 목사(만나교회)가 임직자 권면의 말씀을 했으며 남가주북지방 교역자들이 축가하고 오정택 목사가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최선호 목사(벨리주하나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벨리주하나교회는 벨리하나로교회와 따우전옥스 주님의 교회가 지난 2019년 9월 15일 통합예배를 드림으로 하나가 됐다. 다음은 이날 취임자와 임직자 명단.

△담임목사: 오정택 목사, △신전권사: 박호식, 유영애, 김용건, 박신옥, 박혜숙

(박준호 기자)

마지막의 애국기도는 이희선 장로가 인도하고, 맨 마지막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이층에 목사의 애찬기도 후 미주3.1여성동지회가 후원한 오찬을 나눴다.

예비역기독교인회(KVMCF SC)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 말씀새로움교회에서 애국이벤트 신앙행사로 정구예배모임을 가진다. 다음 모임은 3월 14일(토) 오전 11시에 있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배기독교인회)

### 서부교계 게시판

#### 더 소스 심형진의 워십투게더 콘서트

엔터테인먼트 데스티네이션 “The Source”에서 오는 15일(토) 오후 5시 ‘워십투게더’ 시리즈의 아홉 번째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심형진의 워십투게더 콘서트 아홉번째 집회이며 이번 콘서트에는 한국에서 온 예수전도단 화요모임팀(대표인도자 염민규 간사)이 함께한다. 또한 지역의 2세 팀인 ‘Commonground Worship’이 오프닝을 맡게 되고, 스톤게이트 뮤직의 워십팀이 어쿠스틱 세션으로 함께 한다. 이날 공연관람은 전석 무료.

▲문의: (470)875-2460

#### 재미있는iT 강의...차원이 다르게 카카오톡 사용하기

‘차원이 다르게 카카오톡 사용하기’ 강의가 15일 오전 9시 30분~12시까지 주님의 손길교회(2275 W. Lincoln Ave Anaheim)와 오후 2시~4시30분까지 찬양교회(3401 W. 3rd St. LA)에서 각각 진행된다. 수강료 30불. 강사 IT 전문가 윤승준씨.

▲ 문의: (909)971-7720

#### 한미연합회, 2020 센서스 인구조사국 임직식 취업 신청안내

한미연합회(대표 유니스송, 3727 W 6th Street #305 LA)는 13일(목), 21일(금)에 2020 센서스 취업신청 워크숍을 갖는다. 인구조사국은 2월말까지 임직식을 모집하며,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한다. 최대 나이 제한은 없으며 미국 취업허가를 소지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미연합회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 2월 7일에 2020 센서스 인구조사국 임직식 취업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문의: (213)365-5999 audrey@kacla.org

#### OC 지역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는 15일(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부에나파에 소재한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8888 Los Coyotes Dr)에서 OC지역 정치인과 선교단체장, NGO 단체장, 성도들을 초청해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714)529-3859

#### 성경적 성가치관 세미나

성경적 성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위한 성교육 세미나가 △14일(금) 오후 7시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15일(토) 오전 6시 △19일(수)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16일(주일) 오후 1시 레오폴리티 초등학교 강당(2481 W 11th St. LA)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김지연 집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차세대바보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퓨리리터내셔널 상임대표).

▲문의: 감사한인교회(714)521-0991, LA사랑의교회(213)386-2233, 베델한인교회(949)854-4010

####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 설립기념예배 및 임직식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심창섭 목사) 설립 32주년 감사기념예배 및 임직식이 16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된다. 이날 임직식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협동장로, 협동 안수집사, 명예안수집사 임직식을 갖는다.

▲문의: (858)278-3210



남가주말선교단 임동윤 형제와 김그레이스 자매의 혼인예식에서 신랑신부와 남가주말선교단 스태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남가주말선교단 임동윤 김그레이스 혼인예식

남가주말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임동윤 형제와 김그레이스 자매 혼인예식을 8일 오후 4시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가졌다.

신랑 임동윤 형제는 자폐증상을 앓고 있으며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출석하며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참석해왔다. 신부 김그레이스 자매는 강순의 목사(은퇴)와 강혜선 사모의 차녀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교제를 통해 사랑을 키워나갔다. 지난 2019년 9월 임동윤 형제와 가족이 미국여행 차 방문했을 때 김그레이스 자매와 만나게 됐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으며 말선교단에서 9월 16일 약혼식을 올렸다.

이종희 목사는 “하나님이 주

신 많은 축복, 기쁨, 은혜를 받고 누리는 가정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은혜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가정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결혼식에선 신랑 임동윤 형제의 어머니 정은자 권사가 ‘축복하노라’라는 제목의 축하송을 불렀는데 새가정을 이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하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편 이날 결혼식을 위해 김선영 미용실(사장 이현준)에서 신랑신부 화장을 무료로 봉사했으며, 웨딩플래너 선백 형제, 데이빗 양 형제가 비디오 촬영 및 편집, 강성남 집사 문했을 때 김그레이스 자매와 만나게 됐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으며 말선교단에서 9월 16일 약혼식을 올렸다.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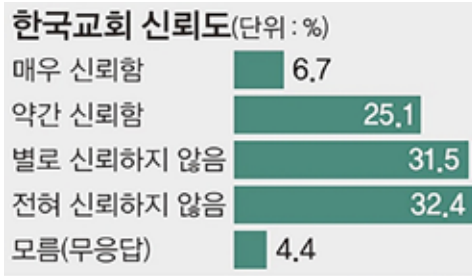
## 10명 중 6명 “한국교회 신뢰 않는다”

기윤실, 19세이상 1000명 설문...30-40대 신뢰도 최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열었다. 기윤실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31.8%에 그쳤다. '매우 신뢰한다'가 6.7%, '약간 신뢰한다'가 25.1%였

다. 반대로 63.9%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약간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32.4%, 31.5%였다. 기독교인과 무종교인의 시각차도 컸다. 기독교인은 '신뢰한다'가 75.5%였지만 무종교인은 '신뢰하지 않는다'가 78.2%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73.4%, 74.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60대 이상에선 '신뢰한다'가 48.9% 이상에선 '신뢰한다'가 48.9%로 '신뢰하지 않는다'(42.3%)보다 높았다. 기독경영연구원 운영위원인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30-40대가 교회에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답답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대여서 최근 일부 목사의 정치 참여에도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회자의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선 '신뢰하지 않는다'가 68.0%로 '신뢰한다'(30.0%)를 크게 웃돌았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항목에선 가톨릭(30.0%) 불교(26.2%), 기독교(18.9%) 순으로 답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기 위



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첫 손에 꼽힌 것은 불투명한 재정 사용(25.9%)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의 삶(22.8%), 타종교에 대한 태도(19.9%), 교회 성도(8.5%)가 뒤를 이었다. 정 교수는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윤리성과 도덕성 회복"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한기총과 통합 권태진 대표회장에게 전권 위임”

한교연, 임원회 열고 위임 결의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9-1차 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통합의 길'을 권태진 대표회장에게 전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기총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연임된 전광훈 목사가 "한교연과 한 달 내 통합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나온 결정이다.

권 대표회장은 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한국교회는 연합기관 통합에 대해 '하나 됨'을 지향하며 수년간 공감대를 다져왔다"며 "지금은 시간을 끌 때가 아니라 통합을 위해 더 다가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임원회 참석자 모두 한 차례씩 의견을 발표했는데 '한기총과의 통합의 길'에 대해 찬성론과 신중론, 반대론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상임회장단이 포함된 통합추진위(위원장 송태섭 목사)와 긴밀하게 논의해 일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두 기관이 분열하기 전 사용하던 7·7개혁 정관으로의 복귀와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 및 회원권 문제 등 그동안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한기총 측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한기총이 전 목사 주도로 대규모 정치집회를 지속해옴에 따라 '기구통합 후 정치화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권 대표회장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정치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과격한 정치적 선동은 막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연합기관 통합 논의는 항상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세 기관이 하나 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왔다"며 "늘 열린 자세로 한기총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회에서 한교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다음 달과 4월로 각각 예정됐던 인도 선교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진행해온 '한국교회 특별 기도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4개 교단과 4개 단체의 한교연 가입을 결의하고 회원 가입 승인을 위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일정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 “부활의 기쁨, 퍼레이드로 하나됨 노래하자!”

한교총, '코리아 이스터(부활절) 퍼레이드' 축제 개최

한국교회 대표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코리아 이스터(Easter·부활절) 퍼레이드' 축제를 오는 4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교총과 CTS 기독교 TV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백석예술대학교가 후원하는 '이스터 퍼레이드'는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 됨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광화문과 세종로 일원에서 진행된다.

소감석 목사(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조직위원장)는 "올해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5년이 되는 해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 두 젊은 선교사가 제주포로 불리었던 인천항에 내렸다"면서 "교파를 초월해 선교 사역을 협력했던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 부활절 역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스터 퍼레이드를 통해 초 갈등 사회가 화해와 화합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스터 퍼레이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진행되는 부활절 예배를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퍼레이드는 기독교 문화의 역사성을 지닌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출발해 광화문까지 약 4km의 대규모 행진을 이어간다.

행진 선두에는 '이스터 퍼레이드' 깃발과 플래카드를 든 기수단이 선다. 고적대, 군악대, 브라스밴드 등 다양한 구성의 '취타대'가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곡을 연주하며 행진한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위해 타고 온 범선 모형의 플로팅카를 앞세운 '기억의 행진'이 그 뒤

를 따른다.

이밖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진', 시대에 필요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행진', 교회와 선교단체의 봉사를 알리는 '섬김의 행진', 부활의 기쁨 선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전달하는 '친교의 행진'과 '다음 세대의 행진'도 이어진다.

광화문 앞 특설무대에서는 하나 됨과 부활절을 의미하는 음악악과 각종 전시, CCM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교총은 이날 축제에 성도들과 시민 등 약 3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수석 목사는 "이스터 퍼레이드는 한국교회가 하나 됨과 광화문광장과 종로구 일대에서 부활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 "이념과 진영 논리로 분리된 한국 사회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기독교의 사랑과 치유의 정신을 전달하는 기독교 문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이스터 퍼레이드' 행사가 다른 집회 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평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사무총장)는 "현장에서 여러 시위가 진행될 것이고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활의 기쁨을 알리고 평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고 구분될 수 있도록 고심하면서 관련 부처와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회 연합을 위한 움직임과 노력은 있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영 목사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 됨에 관한 생각을 잃고 있다. 연합은 일단별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다. 한교총에는 현재 30개 교단이 가입돼 있고 교단장들이 교단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 한교총은 선거제도를 없애고 각 교단 대표 3명이 공동체제를 맡아 운영해 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KWMA “중국 선교사 철수하라”

한국교계 '신종 코로나' 대응 수위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철수 요청이 내려졌다. 주요 신학대도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을 취소하고 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는 중국 선교사의 철수를 권고하되 철수할 강력 요청하는 것으로 수위를 높였다. KWMA는 5일 회원단체에 중국 선교사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중국 선교사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되 자진 철수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당분간 선교사들의 중국 입국이나 여행권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당부

했다.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에겐 2주간 자발적 격리 조치에 들어갈 것도 권했다. 이들을 위해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교회 수양관 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중국 선교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단계도 있다. A단계 관계자는 6일 "중국에 파송됐던 선교사와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 잠복기인 14일 동안 자발적 격리에 들어갔다"며 "불안감이 큰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부도 이날 교단 소속 중국 선교사들에게 일시 철수할 것을

제차 권고했다. 지난달 말 현지 선교사회에 철수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기감 선교부는 수시로 선교사들의 철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오일령 기감 선교부 총무는 "선교부가 선교사들의 철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인접국으로라도 몸을 피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선교계는 보안 지역인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때 중국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국가였지만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해 상당수가 선교지를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명의 선교사가 중국 전역에서 사역 중이다. 신학대도 신종 코로나 대응

에 나섰다. 한신대(총장 연구홍)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학위증서는 신청자에 한해 우편 발송하기로 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 역시 취소하고 매년 이어오던 중국 교환학생 파견도 이번 학기엔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신학대(총장 황덕형)와 총신대(총장 이재서)는 각각 12일과 17일 열려고 했던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취소했다. 교육부의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일부 대학은 학사 일정도 조정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총장 임성빈)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개강을 2주 늦춰 3월 17일에 하기로 했다. 고려신학대학원(원장 신원하)은 7일 교수회에서 졸업식·입학식 취소·연기와 개강 연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CCA 대학교회연합회 법인 설립

캠퍼스선교에 봄...경북대학교회 등 5개 교회 주축

전국의 대학교회들이 정체인 캠퍼스 선교의 돌파구를 찾고자 모였다. 대학교회연합회(Campus Church Association 이사장 방선기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양재온누리교회에서 CCA 대학교회연합회 법인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대학교회 목회자와 대학교수, 학생 등 76명이 참석했다.

대학교회연합회는 경북대학교, 고원대학교, 서원대학교, 외대교회, 카이스트교회 5개 교회가 중심이 돼 지난달 20일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대학교회연합회 측은 현재 전국 대학 중 기독교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교에만 20개의 대학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이들과의 관계망을 확장하는 한편 전국 대학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목표다.

방선기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요즘 청년들의 눈높이와 관심사에 맞춰 캠퍼스 선교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이사장은 "1970년대 한국교계 전체에 불어온 영적 부흥은 캠퍼스 선교 부흥의 씨앗이 됐다"면서 "하지만 언제부턴가 캠퍼스 사역과 전도가 어려워졌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교회 성장의 둔화가 시작됐다"

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방 이사장은 "이전의 캠퍼스 사역 목표가 오직 전도와 선교였다면 지금은 젊은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살펴봐야 전도의 열매가 제대로 열릴 것"이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사역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대학 선교의 부활, 회복을 위해 대학교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대학교회연합회 대표 정동영(외대교회) 목사는 "요즘 청년들은 신앙에 냉소적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개인의 문제에만 빠져 있다. 사람과 관계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캠퍼스 선교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대학교회를 세우는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캠퍼스 선교 부흥의 그루터기가 사라져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회연합회는 캠퍼스 현장의 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역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교직원 학생 유학생 기독교 동아리 지역 교회 등 모든 그리스도인이 캠퍼스 사역에 연합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 자원감소 속 관심 청년 증가 '고무적'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주제 CCC 선교캠프 개최

대학 캠퍼스 선교가 위축됐다고 하지만, 해외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길 바라는 청년들은 숨은 보석처럼 빛을 발하길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주와 같이 갈 가는 것'이란 주제로 서울 은평구 팀비전센터에서 개최한 'CCC 선교캠프'에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CCC 해외선교팀장 김장생 선교사는 "그동안 청년 선교 동원이 줄고 한국교회 내 선교사 파송도 정체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캠프를 준비했다"면서 "청년들이 이번 선교캠프를 통해 해외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선

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선교 자원의 감소로 이번 수련회는 15년 만에 개최됐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예정된 인원보다 적은 60여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찾은 수련회 현장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관심을 가진 청년들의 열정이 넘쳐났다.

CCC도 이들을 위해 선교 주제별 선택특강과 주제강의를 엄선해 준비했다. 선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미션톡' 시간과 각자의 선교비전을 공유하는 '그룹워크숍' 시간도 마련했다.

##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

‘젠더정책의 실체’ 포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학교 현장 속 성교육과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이 과도하게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교육이 미쳤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 주최했다.

포럼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젠더이론'과 집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양성'을 부정하고,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갖는 위치를 완전히 폐지,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성경 속 남녀 고유의 성과 도덕,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

먼저 박영라 우리아이지기킴이 학부요원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성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하지 않고 성적 자결정권에 의한 권리로 가르

치고 있는 점' '청소년 에이즈의 93%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필수 정보는 가르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는 현 사회에 퍼진 젠더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젠더이론은 성별 구분의 와해를 가져왔다"면서 "젠더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교육이 아닌 이념주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세대에게 남녀라는 올바른 성의 개념과 함께 책임과 자기절제,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출신 이봉화 대표는 현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성별 구분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제3의 성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로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성 평등'이 아닌 남녀라는 '실제적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젠더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시민 교육 강화, 가족의 보편적 가치 보존 등을 제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측은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 갈등을 넘어 사회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11)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 2. “새로운 삶” - 레일리사 안젤리노 가니카

나는 거의 30이 되어 가는 데 유해하거나 결혼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다. 매우 좋은 유년기를 거치면서 부모님은 나를 응석반으로 키우셨다. 십대 초반부터 가솔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내가 16세가 되었을 때, 아들 도미니를 낳았다. 아들은 26주 만에 1.2킬로그램 밖에 나가지 않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아들은 아홉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도 나는 혼자서 아니었다. 릭이라는 좋은 남자를 만났고, 그는 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멧줄도 끊어주고 자신의 아이처럼 키워주었다. 11개월 후, 딸 알렉산드리아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의학적 합병증을 가진 미숙아였다. 나는 겨우 17살에 두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었다.

나는 12년을 릭과 함께 살았다. 우리가 6년을 같이 한 후, 마지막 아기 애드리아를 낳았다. 릭과 나는 술과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마저 약한 몸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리유니언에 36만 달러짜

리 드림하우스를 샀다. 나는 크라이슬러 300차를 몰았고, “풍선껌 부는 어린이집”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

2006년 나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계획했다. 외부적으

로 우리는 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항상 싸웠다. 우리 결혼식 6일 전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그는 감옥에 갔다. 그러나 2년을 더 그와 함께 살다가 2008년에 헤어졌다. 나는 몇 달 동안에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은 문을 닫았고, 차는 회수되었으며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그리고 릭이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갔다.

나는 옷 가방 하나와 사진,

아이들의 것이 들어있는 세 개의 가방을 가진 노숙자가 되었다. 친구가 나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나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 친구는 나의 2,000달러를 훔쳐 뉴멕시코로 달아났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이들과의 추억도 없는 노숙자가 되었다. 너무도 처참한 상태가 되어 다시 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결코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술과 마약을 전혀 하지 않았던 내가 아픔을 달래려고 친구와 함께 주말 음주모임에 나가서 매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

교도소를 가게 된 것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 내신 것이라 믿는다. 차, 집, 아이들, 거기에 자유, 내 자유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기적이듯이, 어느 날 밤 다 른 수감자가 나에게 “예수님과 걷는 길”이라는 책을 건네 주었다. “감옥에서 무슨 하나님을...” 나는 통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지루해지자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을 다 읽은 후 다시 “치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책을 읽었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맥도날드(이영희:편집자주) 목사가 남편 Keith를 교통사고로 잃은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루에 두 권 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책이라 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애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환경에서 책을 편집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우울증과 영적 치유의 길” 책에 쓰인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책은 나를 위해 쓰여진 것임을 느꼈다.

이틀 후 목사가님이 돌아오셔서 편집할 다른 책을 주셨다. 같이 기도를 한 후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나에게 관해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다음에 쓰실 책에 넣을 내 이야기를 쓰라고 권유하셨다. 그녀가 바로 내가 기도하던 그 응답의 표시였다.

그 후부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이미 얻은 것이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어요!”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일하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임을 교도소에서 배우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나는 아직도 삶을 더 배워야 하는 과정에 있음을 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내가 원했었고 계획했던 삶은 끝이 나고, 예전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겸손하게 오로지 나의 아이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

45일간 교도소에서의 삶에서 주님의 힘이 나의 영혼을 정화하고 조금씩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산의 정상에 오를수록 주님께 더 가까워지며 사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주님과 만남은 나 자신을 알게 하고 내 삶의 목적과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예수님과 걷는 길” 책을 읽고 예수님과 같이 걷게 됨으로써 나 자신이 구원 받았고,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일하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임을 교도소에서 배우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나는 아직도 삶을 더 배워야 하는 과정에 있음을 안다....

다. 음주는 나의 생각에 먹구름이 끼도록 했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나는 포기해버린 내 삶의 수렁에 빠져 타인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의견과 음주가 나를 통제하도록 버려두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아예 내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쥐버렸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나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교도소로 오게 되었다. 이전 자유까지 잃고 충격에 휩싸여 처참한 심정이 되어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다.

책을 읽었고, 성경공부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할로윈에는 나의 아이들을 생각하느라고 여전히 슬픔에 싸여 있었는데, 맥도날드 목사가님이 미소를 머금고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그룹별로 기도를 했고, 그녀는 나에게 편집해 달라며 원고를 주었다. 내 방으로 돌아와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언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지만 그 책을 읽어가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물질적 삶, 자기만족, 내 삶에서의 선하지 못한 거짓된 사람들,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살리신 것이다!

수감생활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이로부터 고립시켜 놓았고, 특히 내 아이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았다. 처음에,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비난하며 분노하는 말로, “



### 드라마 신약 (13)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사를 시작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신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시간순서대로 재배치하여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읽었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발생되는 시점과 상황에 맞추어 바울서신서들을 현장감있게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것입니다. 공동서신서를 바울서신과 연결시키지 않은 이유는 공동서신서들은 발생된 시간과 사건에 구애받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보편적 편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 볼 것입니다.

공동서신(약, 유, 벵전후, 히, 요일 이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사도들도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공동서신서이며, 공동서신서를 통하여 사도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라는 인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율법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야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소식을 야고보가 듣게 되었을 때 야고보로부터

받을 질책이 베드로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의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서의 행함입니다(약1:22, 2:14-26). 즉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입니다(약2:21-22). 그 행함은 언어의 표현(약3:1-12), 다름의 원인인 욕심

을 제어함(약4:1-3), 비방과 허탄한 생각을 금함(약4:11-17) 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증상은 인내와 기도(약5:7-18)로 나타납니다.

유다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감옥에 갇혔을 즈음(행28장 즈음)에 쓰여졌으며,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유1:3-16), 이단에 대한 변증을 통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유1:17-25)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 신을 쓸 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핍박 받고 있는 흠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핍박 받는 중에도 우리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벵전1:3)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거룩의 삶을 살게 됩니다(벵전1:13-21). 거룩의 삶을 사는 자들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벵전2:9). 그 사명을 직장에서(벵전2:18-25), 가정에서(벵전3:1-7) 사랑으로(벵전4:8)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벵전4:12-19). 또한 교회지도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목양을 할 것을 당부(벵전5:1-11)하며 마칩니다.

베드로전서를 쓰고 약 1년 후에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죽음에 임박한(벵후1:14-15) 베드로의 유연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내용은 성도의 성화(벵후1:3-11)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그대로(벵후1:16-21) 꼭 오십니다.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강론(마24-25장)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이 더딜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벵후3:3-4).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더 많은 사람

이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라면, 사도 요한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창세기의 첫 단어인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창조주 하나님 이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 이시오 영생이시라”(요일5:2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사랑(요일2:7-1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요일3장).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4장).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입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무렵 드디어 예수님께서 박해 받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계1-3장).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형태의 샘플로 존재한 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였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계4-5장). 세상 죄를 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계6-7장). 일곱 인을 때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계6장)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교회와 온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십니다(계7장).

8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 주 그리스도께서 심판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세상 나라와 싸우는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계17:14). 그 분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계18:2-3).

심판의 예언 후에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계19장). 혼인잔치 장면이 지나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 년 왕국을 보여주시며(계20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계21장)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1:20)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흘러 온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장차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dsukim@gmail.com

### 공동서신 및 요한계시록

#### 요한은 예수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 드러내 계시록은 고난 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 목적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에 이르게 할 기다리시기 때문(벵후3:8-9)입니다. 그렇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벵후3:10-18).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며, 예수님(기록본)에 대한 논문과 같은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히1:1-3), 천사보다 우월하시고(히1:4-14), 모세(율법)보다 우월하십니다(히3:1-19). 그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히4-8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성소, 장막, 제물 등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히9-10장). 그렇기에 그 분을 믿음으로 굳게 잡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히10:19-39).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조상들(히11장)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히12:1-2), 그 믿음이 합히 거룩한 습관으로 나타내야 함(히1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기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목시인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시는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함을 통하여, 그 예언을 이루실 예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 받는 교회를 격려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숭배를 받았고,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도미티아누스 숭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이유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 사도 요한은 밧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본



## 뉴욕한인교회 독립기념관 설치

뉴욕한인교회는 1921년 3.1절 독립운동 2주년 기념식을 맨하탄 타운홀에서 서재필 박사 및 동포 60여명이 주관했다. 그 대회 한 달 후에 뉴욕한인교회가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미 동부의 최초의 교회로서 개척되었다. 미 동부지역에서 최초의 교회인 뉴욕한인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명 아래 민족의 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조국의 독립에 헌신한 애국지사들이 배출된 교회이며, 애국가가 만들어진 장소이며, 초대 한국정부가 세워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교회이며, 동포 사회에 교회들과 많은 기관들의 모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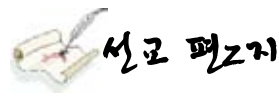
뉴욕한인교회 건축 공사 진행과정

역3천만원(약 200만불)을 뉴욕한인교회 내 독립기념관 설치를 위한 지원금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100여년 동안 끝까지 역사적인 자리를 지키면서 재건축을 하는 뉴욕한인교회는 2020년 3월에 건물 완공과 동시에 2021년까지 교회 건물 내에 지정된 공간에 독립기념관 완공 및 개관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알리게 되었다.

새롭게 설치되는 독립기념관은 뉴욕한인교회 산하에 있는 비영리재단인 Korean-American Diaspora Foundation(KADF)을 통해서 운영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 KADF는 독립기념관 운영 및 한국학교, 문화 예술 음악과 학술 및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국사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2세들에게 자랑스런 Korean-American의 자부심을 갖는데 기여하고자한다. 또한 뉴욕한인교회 안에 설치되는 독립기념관은 미주에서 실시된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역사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뉴욕한인교회는 초기 이민자들과 애국 독립투사들과 유학생들인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초로 세워졌고, 교회를 거쳐 간 옛 교인들과 현재의 교인들과 동포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앞으로도 뉴욕한인교회는 이웃에게 평화와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커뮤니티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교회로서 민족의 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자한다.

2020년 1월 13일 뉴욕한인교회 교우일동과 담임목사 이용보 드림



선교 편지

## 캄보디아

###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많이 궁금하셨지요? 작년에도 안식월로 미국을 방문하고 7월에 돌아온 이후로 전혀 선교지 소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 건기를 지나며 온통 빨간 흙먼지로 뒤덮인 천지에 오늘 새벽부터 가랑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 새벽엔 섭씨 21도(69.8F), 낮엔 29도(84.2F). 만나는 사람마다 옷을 꺼입고 춥다 하며 답니다. 날씨가 이러면 감기 환자가 많아지는데, 중국발 바이러스와 시기가 겹쳐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 마을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곳의 마을 센터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분께서 센터 학생들을 위해 티셔츠를 만들어주셔서 한 공동체



쁘레이 크피어이 센터

에 속해 있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2. 2019년 12월 22일에 4개 센터, 2개 마을 교회가 함께 모여 성탄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펄 목사, 워터 목사, 교실 전도사가 준비하고 진행을 맡아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각 센터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준비해와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3. 세곳 마을 센터는 각각 디렉터들(잔타 선생님, 소펄 목사님, 워터 목사님)에 의해 선생님들과 함께 잘 운영하고 있지만, CIA 학교내의 센

터는 밀키 선교사 내외가 도와주었지만, 선생의 부족으로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11월, 12월동안 한국에서 김진리 자매가 단기로 학교에서 봉사하며 센터에서도 도와주어서 그 시간동안 제가 선생님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명 선생님, 1명 인턴으로, 계속 선생들을 가르치며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을 사람 중에서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타 지역에서 온 선생들과는 다르게 우리 마을 학생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끈끈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4. 커뮤니티센터 기공식: 2019년 10월 29일에 CIA 학교부지 안에서 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빈 교실이 없게 되므로, 센터 학생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설립된 임마누엘 캄보디아 사단법인에서 주관이 되어서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설계 변경 등이 의논되고 있고, 정부의



허가 수속 등으로 좀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이제는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호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프놈펜으로 가서 국립간호대 학생들을 위탁교육반인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타, 레익스메이, 팔린 선생님



지 있는 1-3세대 학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다 프놈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세워질 학교, 커뮤니티센터, 직업학교, 병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며, 어른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해 이 나라 사람들의 삶속에 예수님을 심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를 하며, 궁극적으로 이 선교의 주체가 이 나라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떠난 자리에 교회 목사, 학교교장, 커뮤니티센터의 센터장, 병원장, 의사학교 교장등이 캄보디아 사람이 되어 이 사역이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7. 마을 교회 사역은 박승배 선교사님 내외분, 코너스톤 국제학교는 정 혁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맡고 계시고 저는 마을 센터와 헤브론 간

기도제목  
1. 에스더 선교사가 훈련시키는 3명의 센터 교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제타, 팔린, 레익스메이)

2. 에스더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3. 4개의 마을 센터가 성경을 가르

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본분을 다하며, 센터 디렉터들이 소명을 가지고 일하도록

4. 이 마을 사역에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할 캄보디아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5.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때문에 2월달에 있을 단기 선교팀 일정이 취소가 되었 미국과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건강과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곳의 소식들을 자주 전해드리야 하는데, 제가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2006년부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이 캄보디아 사역과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습니다.” 하는 칭찬을 들을 욕심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받을 칭찬입니다. 선교사의 발을 함께 받으실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조에스터 선교사 올림.  
esther.m.cho@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2 (Lambert &amp; Puente)</p>	<h4>남가주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문 이모임: 오후 1:20 젊은인(장스-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0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g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김경원,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머무는교회</h4>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우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요모임 장소)</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사역원</h4> <p>원장: 박윤송 목사 엘피어로 엘피스는 (ELPI)의 뜻은 소망 (Hope)입니다.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근해캐나다: 오전 5:30(월-토)</p> <p>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한민)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금요예배: 오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톤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다시 오 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핼(PIM)선교회, 교회</h4>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목부: 오전 11:00</p> <p>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3229 N. Verdugo Road, Glendale, CA 91208</p>	<h4>하늘소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모임: '어성령이 임하여'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u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 영어로 보는 성경 (53)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Colossians 1:15-17

15)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16)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17)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NIV 2011)

### WORD & IDIOM

\* visible: 보이는 \* invisible: 보이지 않는 \* firstborn: 맨 먼저 태어난 아이, 장자 \* over ~: ~ 위에, ~ 보다, \* whether A or B: A이든지 B이든지(양보의 뜻) \* throne: 왕권, 왕좌, 보좌 \* authority: 권세 \* before all things: 모든 것 전에(before: 시간적으로 앞섬) \* hold together: 결합하다

### GRAMMAR

15)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아들은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먼저 나신(태어난) 자 모든 피조물 보다 →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 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는 주어진 <The Son>을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수식어구이며 이 경우 (&and)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16)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하늘 안에 있는 것들과 땅위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왕좌(왕권) 권력 통치자 권세

→ (다시 말해서) 하늘 안에 있는 것들과 땅위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이든 권력이든 통치자이든 권세이든;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 (즉)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 만들어진 모든 것(all things)이 어떤 것인지 부연하는 수식어구가 (:), (, ) 등을 사용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다. 우리말로 해석할 경우에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다시 말하자면, 즉, 그리고> 등을 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된다.

\* <visible and invisible>은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에서 <things>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들이다. <things (which are) visible and invisible>로 이해하라.

17) He is before all things,

그는 모든 것 전에 있다,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결합하다(한다) →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결합한다.

\* 여기서의 <before all things>에서 <before>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창조 되기 전부터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의미이다.

### STUDY & THOUGH

■ 15절에서의 '먼저 나신 자'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란 의미가 아니라 허브리 사회에서의 상속자인 '장자'와 관련하여 메시아적 호칭으로 사용된 말로서 '주의 비유적 대명사'이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이 있기 전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독생하신 자로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음을 받았다. 17절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원 전 선재하심에 대해 부연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탁월성과 위엄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그분이 만물을 창조, 통일, 보존, 섭리하시는 주재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참으로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서 불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 Christ has given creatures their existence and still governs over all things.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왕상22:15-24)

본문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십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대로 말한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왕에게 아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이때에 살

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이 미가야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부하는 선지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영을 넣어서서 거짓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이 전쟁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더니 시드기아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진리위에 서야 합니다.

## 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왕상22:25-28)

미가야 선지자가 진리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뺨을 맞고 본문을 보니 감옥에 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인다는 이 말씀의 뜻은 감옥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그래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 때 외롭고 오해받고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욱더 진실하게 말씀가운데 서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 수 길르앗 라뫼스로 올라가니라(왕상22:29)

본문의 교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학적 용어로 악인이 패망하는 길로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유

기"가 가장 비참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롬1: 21 이하에 내버려두시는 31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버려두실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 목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왕상22:30)

본문은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왕은 드디어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죽는다고 비겁하게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무시해버렸지만 그래도 찔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

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괴롭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부담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금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왕상22:31-33)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성도는 어떠한 위험상황 속에서도 결국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야 할 아람왕이 그 장군들 3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왕만 잡아 죽이면 되는 작전입니다. 아람 장군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집중공격합니다. 여호사밧왕이 당황해서 "나는 아합이 아니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당시 사진 찍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

니고 왕인지 장관인지 군복을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살았습니다.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한분 의지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토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왕상22:34-38)

본문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왕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군중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누가 아합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갑옷 슬기"에 화살이 맞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슴과 갈비대 부분을 덮기 위해서 금속조각 방패로 이어 놓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

입니다. 그래서 화살에 맞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전쟁이 맹렬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가 흘러 죽어서 개들이 핏물을 핥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한순간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뤄집니다. 진정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섀피드 에버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주전 120년경 초기의 랍비 현자 축에 드는 예호슈아 벤 페라 키아는 이런 지혜의 말을 했다. "각 사람을 그들에게 가장 조절된 저울로 판단하라." 이 말을 들으면 옛날 시장에서 상인이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 곡식을 부어 무게 추를 얹은 반대편 접시와 평형을 맞추던 광경이 떠오른다. 마음씨 좋은 가게주인은 접시가 균형점을 넘어 기울 때까지 덤을 얹어준다. 즉 랍비의 말은 남의 행위를 너그러운 편으로 '가중조정'하라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행동 이면에 숨은 호의(혹은 악의)를 찾아낼 수 있다. 다른 이의 동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다. '우호적 판단'을 하려고 습관적으로 노력했을 때 더 친절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최악이 아닌 최선을 기대할 때 우리 태도는 더 다정다감해진다.

# 비전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 리더십저널, 존 맥스웰에게 듣는 '비전'의 행동리더십 소개

### 충족시킨다

리더십 세미나 도중에 어떤 사람이 맥스웰에게 자신의 회사 비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비전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요구할 수도 빌려올 수도 없다. 비전은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 디즈니의 경우 가능성은 문제가 안 되었다. 비전을 향한 창의성과 갈망으로 월트는 항상 "가능한 그 무엇"을 보았다.

비전이 부족하다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욕구를 끌어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 그래도 비전을 알아낼 수 없다면 당

진정한 비전은 큰 영향력을 가진다. 비전은 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이다.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것 이상이다. 비전은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비전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무엇이 심장을 뛰게 할까? 무엇에 관해 꿈꾸고 있는가? 추구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

### 가 있는가?

그리고 예전에 비전을 생각하고 분명하게 표현해 보았다면, 그것을 잘 수행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배우자, 친구, 직월같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당신의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당신은 비전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 체크하라

비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비전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지, 무엇이 당신을 울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꿈꾸게 하는지, 무엇이

## 가진 재능과 욕구 끌어내 소명에 부응, 공감비전가진 리더와 연결 좋은 팀 구성, 충고(조언), 멘토, 평가 필요...불만족 소리도 들어야

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비전을 가진 리더와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 월트 디즈니의 동생 로이가 행한 방법이 그것이다. 그는 어떤 일이라도 해내는 사업가고, 월트는 그에게 비전을 제시했다. 둘은 파트너로서 멋진 팀을 만들었다.

### 비전은 역사 속에 있다

비전은 아무것도 아닌 공백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비전은 리더의 과거 혹은 주위 사람들과의 역사로부터 발전한다. 디즈니도 그랬고 모든 리더들도 그렇다. 어떤 리더와 이야기 해봐도 비전이 될만한 핵심사건을 찾을 수 있다.

비전은 다른 이의 욕구를

다. 당신의 비전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면 아마도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 비전은 자원을 끌어 모은다

비전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도전 의식을 북돋우고, 결합시키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 비전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자원도 끌어 모은다. 비전이 훌륭할수록 더 많은 승리자를 이끌 가능성이 있고 도전적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그렇다면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훌륭한 경쟁자가 돼야 한다.

내 안의 목소리

### 불만족의 목소리

영감은 어디에서 나오나? 우선 무엇이 맘에 들지 않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이야말로 비전을 위한 기폭제이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자신을 발견했는가? 리더는 변화하기 위해 싸운다.

### 앞선 자의 목소리

혼자 위대한 성공을 성취할 수는 없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좋은 팀을 구성해야 한다. 당신보다 앞서간 누군가로부터 좋은 충고도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끌고 싶다면 멘토를 찾아야 한다. 당신의 비전에 도움을 줄 조언자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삼차 신경통

### 안면에 발생하는 통증

안면부위에 생기는 통증은 흔히 잘못 진단될 수 있으며, 환자도 병을 오해할 수 있다.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턱관절염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두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신경통으로 진단 받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아픈 증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달렸다.

- 은행에 근무하는 50대 중반의 김 모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하다가 오른쪽 턱 아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통증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귀 안쪽도 통증이 너무 심했다. 처음에는 치통으로 생각하고 치과에 갔는데 치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통제를 받아왔다.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김 씨는 나중에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이 삼차신경통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물 치료에 들어갔다.

삼차신경통(삼차신경병증)은 안면에 발생하는 흔한 통증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매년 15,000명 정도가 삼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여성에게 조금 더 흔하다. 흔히 입 주위나 잇몸 근처, 눈 주위에 통증이 나타나며 세수나 면도를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한 후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 지속된다. 인체에는 12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그 중 머리와 목 부위의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다섯 번째 뇌신경인 삼차신경이 뇌에서 빠져나오는 부위에서 뇌혈관과 접촉해 신경이 자극될 수 있는데 이 자극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삼차 신경통은 병력만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뇌 MRI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통증이 발생하면 대개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70% 정도는 약물 치료에 반응한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치료 방법으로 신경에 알코올 주사를 놓거나 감마나이프로 방사선 치료 등을 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삼차신경통은 병력과 이학적 검진만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나 양쪽 얼굴에 통증이 있는 경우, 감각이상 오거나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MRI 촬영을 해서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또 삼차신경통이 처음 시작할 때는 치통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에서 싱글을 초대합니다



### 신앙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님의 영광교회는 싱글 남녀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을 위해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를 설립하여 이제 제 2기 만남의 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적으로 초 교파적으로 운영됩니다.

\*나이의 제한 없이 모든 싱글 남녀들의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남여의 신청 비율이 맞을 때 연령별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 제2기 만남의 장에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 일시: 3월 28일(토) / 29일(주일)
- 시간: 4:00pm
-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Hope Center
- 참가비: \$100(1기 수료자:\$50)
- 보내실 서류: 1.참가신청서  
2.교회주보  
3. 담임목사나 담당사역자 또는 지역 단체장의 추천서,회사 대표의 추천서

\*교회홈페이지 gcjc.org에 들어오셔서 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수있습니다.  
보내실곳: glorysingles@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장을 하시고 시간을 지켜야합니다.  
문의: 회장 이병만 장로 678-538-7777  
디렉터 레슬리조 권사 213-700-6541  
주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